

速記界

第 12 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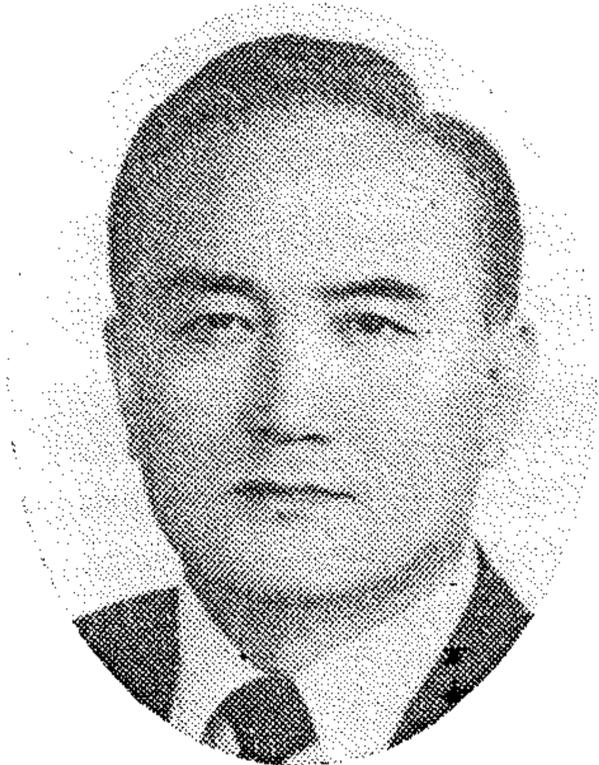
會協記速韓大 團法人

2	10月維新으로 새로운 覺悟를	會 長	金 龍 泰
3	重責을 맡고	理事長	金 永 善
5	研 究 國會速記士(1)		楊 澈 在
19			李 康 賢
27			姜 駿 遠
30	統一主體國民會議業務遂行記		黃 寅 河
33	<르보>國會議事局長送別會		宣 傳 部
36	마나스루 동반기(3)		崔 錫 模
41	論文試驗答案 2題		鄭 源 道
43		1973學年度 國會速記士養成所 新入生選拔經過	
	<수 필>		
44	□ 한해를 보내는 마음		高 錫 光
45	□ 昭 陽 江		柳 智 永
46	第6回 定期總會		總 務 部
50	用語解說		研究委員會
51	● 消 息(1~15)		
53	● 第3回 速記士資格檢定試驗 合格者 發表		
26	● 협회 「마크」		
53	● 速記相談		
18	● 原稿募集		
54	● 會務日誌		
55	● 編輯後記		

題 字 } 海汀朴泰俊
表紙그림 }
寫 眞 李 應 善

10月維新으로 새로운 覺悟를

會長 金 龍 泰



우리는 오늘날 急激히 變轉하는 國內外的 諸般潮流에 對應하여 새로운 歷史의 章을 여는 문턱에 다달았다.

急變하는 世界の 進運속에서 國力을 培養하고 이를 加速化시키기 위한 國民總和의 決意 이것이 바로 10月維新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앞을 내다 볼 줄 아는 그리고 過去와 現在를 올바르게 認識하고 判斷하여 未來를 開拓할 줄 아는 慧眼과 叡智가 切實히 要求되고 있다.

누구나 우리社會 各界各層이 크든 작든間에 自己의 말은 바 部門에서 才能을 啓發하고 精進하여 民族的 矜持를 自覺하고 責任을 誠實히 完遂하여 國家發展에 寄

與하고 國力培養에 直結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安定과 繁榮된 來日이 約束되는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會員들에게 당부하고 싶은것은 國力培養의 밑바탕으로서의 技術振興의 必要性이 切實히 要請되는 것이니 速記人으로서 自己技術의 끊임 없는 研磨, 研究 그리고 一人一技의 獎勵를 위한 技術의 普及을 위해 꾸준히 努力함으로써 能率의 極大化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의 實踐을 위해서는 가까운 우리 周邊의 모든 不條理, 非能率과 無氣力을 果敢히 除去함으로써 維新理念을 生活化하며 培養된 國力을 밑바탕으로 굳게 뭉쳐 責任과 誠實으로써 能率을 極大化하여 繁榮과 榮光된 遺産을 우리들 後孫에 물려줄 決意를 굳건히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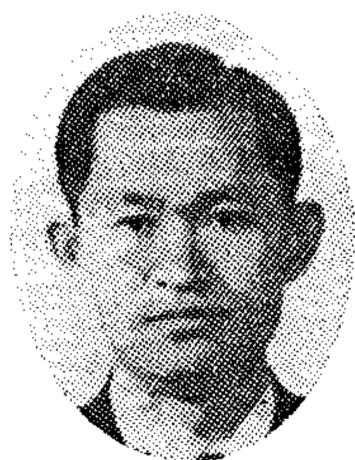
이는 拒逆할 수 없는 嚴肅한 民族의 命令이며 이를 遵行함에 있어서 우리 會員은 한 사람의 傍觀者나 落伍者가 있을 수 없고 躊躇하거나 미룰 수도 없는 것이다.

實踐窮行이 非但 이時代에만 要求되는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實行을 重視하고 言行一致하여 每事를 能率있게 處理해 나간다면 우리도 잘 살수 있다는 信念이 저절로 뿌리박게 될 것이다.

비록 速記人이 맡은 任務가 陰地에서의 눈에 띄지 않는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變轉하는 時代에 슬기롭게 運命과 歷史를 開拓해 나가는데 이바지하여 보람찬 來日을 向해 우리 다 함께 精進 努力하여야 하겠다.

重責을 맡고

理事長 金 永 善



72年 12月 30日
第6回總會에서 理
事長이라는 무거
운 責任이 나에게
지워졌다. 協會의
運營을 훌륭히 遂
行할 理事長으로

서의 資格이 果然 있는가 대단히 疑問이
지만 全會員의 贊同으로 受任됐으니 모든
會員의 協助가 있을 것을 期待하면서 보다
알찬 會의 運營을 다짐해 본다.

먼저 이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
의 位置, 앞으로 向해야 할 方向을 모색하
기 위하여 먼저 協會란 무엇인가부터 음
미해 보아야겠다. 國語辭典의 解釋으로는
같은 目的을 가진 사람들이 團結하여 설
립하고 유지하는 會라고 한다. 協會라하
면 소위 利益團體(Gesellschaft)적인 團體
로 解釋하는 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給
付에 對한 反對給付를 念頭に 두는 것이
다. 그러나 우리協會는 共同社會(Gemein-
schaft)적인 團體라고 斷定할수는 없어도
會員各自의 利益을 爲하여 構成되었다고
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모든 協會의 活動
이 한마디로 말해서 速記 乃至 速記人의

社會的 地位 向上에 있다고 한다면 틀린말
이라 할 수 없겠지만 會員의 直接的인 利
益을 爲한 團體는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社會적으로 有用한 速記를 보다 좋게 改
良하고 보다 널리 普及하는데에 協會의 公
共性이 뚜렷해지는 것이며 會員全體의 地
位向上을 爲한 廣場이 될수도 있는 것이
다. 이런 立場에서 會員間의 相互協助로
이 좁은 社會인 速記界를 보다 發展시킬
任務가 全體 會員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
러한 事務의 執行者가 理事陣이 아니겠는
가 생각한다. 하기 때문에 會員間의 對話
의 幅을 넓혀 全體 會員의 最大公約數가
될 수 있는 欲求를 發見하여 成就토록 努
力할 것이며, 위로는 會長團의 恪別한 後
援이 事業遂行上의 隘路 打開에 有効하게
活用되어야 겠다.

위와같은 前提에서 現實을 分析해보면
難關이 많이 눈에 띈다. 團體나 個人이나
일을 하자면 費用이 들게 마련이니까 먼
저 豫算애기부터 나오게 된다. 한마디로
해서 昨年度로 國庫補助가 끊어진 것이다.
收入이 그만큼 減小된 것이다. 生活水準
이 높던 사람이 收入이 減少되었다고 해
서 그 減少된 만큼 比例해서 生活水準을

내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協會의 事業計劃을 보면 前年度보다 變換것이 別로 없다. 事實 協會를 維持하기 爲하여는 必要한 最小限度의 事業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豫算은 줄었는데 事業은 줄지 않았다는 矛盾을 안고 出發하는 것이다. 그러니 더욱 豫算의 效果的인 運用을 期할 覺悟를 새롭게 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收入의 팽창을 企圖하기는 하되 우선 支出의 幅을 줄여야 할 形便인 것이다.

또 한가지는 前任을 비롯한 歷代 會長團 및 理事陣에서 많은 일을 했다. 그런데 事業이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事業內容이 어느程度 固定돼버렸다. 이것을 어느後任이 輕率히 變更할것이 못되며, 다만 이 施行하는 事業의 質을 向上시킬 責務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주어진 條件을 가장 有效하게 活用하는 協會의 自畫像을 그려나가야 할 時期에 온 것으로 理解하며 우리의 實情에 맞는 軌道를 建設해야겠다.

새로 理事長職을 맡으면서 위와같은 點을 認識하고 어깨가 무거워지나 위로는 훌륭하신 會長團의 積極的인 指導鞭撻을 받고 會員 여러분의 뜨거운 聲援을 받아 理事陣 一同은 舍心竭力 뜻이 있는 運營을 할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은 執行의 方法이라 할까 方向을 提示해본다.

첫째, 會議費 經常費等 事業費아닌 부

대비는 豫算額에 不拘하고 最少限으로 支出할것.

둘째, 事業費中 無料速記講習은 協會事業中の 核心이 되는 事業이니 만큼 支出을 줄이기 爲한 努力보다 事業內容이 充實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그 具體的인 內容으로는 宣傳活動의 擴大 教材의 質的인 向上 管理의 合理化를 期하는 것이다.

셋째, 資格檢定試驗은 必須事項으로 前年度의 規模를 유지하며,

넷째, 會誌發刊도 協會 從來의 方針대로 發行하며,

다섯째, 速記學術研究는 速記界의 앞날을 내다보는 事業으로서 豫算範圍에서나마 最大의 支援을 해야할 部門으로 본다. 全般的인 速記學術의 研究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단기강습을 爲한 法式을 開發하여 從來 所望하던 專門職速記士를 養成하기 爲한 速記와 短期講習用 速記를 分離하여 短期教育의 質的인 向上을 期할 長期對策을 세우도록 支援한다.

여섯째, 體育大會는 繼續事業으로서 實情에 맞고 親睦을 期할수 있는 方向으로 企劃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事業을 잘 遂行하기 위한 努力을 理事陣을 代表하여 아낌없이 할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積極的인 協助를 바란다.



國 會 速 記 士

—그 一般性向에 關한 研究—

< 1 >

楊 澈 在

<設問에 對한 調査>

目 的 : 國會速記人들의 一般性向研究

同研究의 結果를 거울로 速記人自身의 發展을 圖謀함.

調査內容 : 國會速記人들의 一般生活, 思考, 趣向, 評價 및 將來에 關한 意見

調査日時 : 1973年 2月 23, 24日 (兩日間)

調査對象者 : 國會速記士 91名

應 答 者 : 79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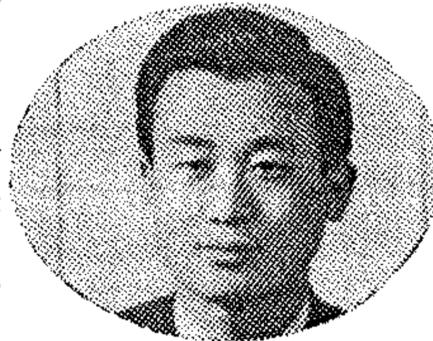
※ 對象人員에 對한 應答比率 : 85.7%

調査方法 : 設問書에 無記名應答한 것을 本協會記者 2人이 無順으로 回收

調査 및 資料處理者 : 楊 澈 在

調査後援 :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調査經緯 : 이번 調査는 公교롭게도 國會速記士養成所入學試驗과 時期가 겹쳐 몇몇분들의 應答을 얻지 못하고 回收하게 되었고 그外는 여러速記人들이 같은 同僚인 筆者가 調査한다는데에 허물없이 意見을 주시었고 어떤분은 양케이트內容이 너무 많아 며칠 두고 꼼꼼히 생각해 봐야겠다는 말씀도 있었니 應答에 대하여苦心한 흔적이 보여서 실제로 資料處理過程에서 보역력했으며 더구나 無應答이 많이나온 문제를 대할 때는 設問 作成上의 未熟을 스스로 느꼈고 制限된 設問應答型이라는 짜여진 調査力法이 다소 아쉬웠다.



本調査分析研究의 試圖는 오래前부터 職場知己間에 일었던 話題를 整理해 보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을 正初부터 서둘러 作業을 進行해 온 것이다. 그러나 筆者亦 公職에 몸담아 있는 處地여서 여러가지로 時間의 制約을 받고 또한 會誌의 紙面割愛문제도 있고하여 2회에 걸쳐 나누어실게 되었다.

目 次

1. 序 論

- (1) 設問의 作成
- (2) 設問에 대한 調査
- (3) 設問資料의 分析方法

2. 本論…分析研究

- 題(1) 生活指針…速記人特有의 健康, 忍耐, 誠實
- 題(2) 餘暇利用…讀書와 旅行과 스포츠에 爲主
- 題(3) 計劃性…計劃的 生活者가 절반이지만
- 題(4) 活動의 障礙要素…經費와 能力의 不足
- 題(5) 速記를 배운 動機…우연히, 호기심으로
- 題(6) 適性…努力과 文章理解力이 으뜸
- 題(7) 難易度…같은 努力으로 外國語 한가지는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
- 題(8) 速記法式의 改良…最近에 많은 改良
- 題(9) 職業의 適性…適성에 맞지 않는다 28%
- 題(10) 矜持와 長點…矜持와 懷疑 半半
- 題(11) 不滿과 短點…慾望과 不滿은 比例한다는 데

1. 序 論

歷史는 記錄의 産物이라고 한다. 遺蹟에 적혀 있는 것이 어떤 뜻을 나타내는 文樣이거나, 글자 이거나간에 그것은 先祖들이 걸어온 자취를 되 새기는데 좋은 資料가 된다.

歷史를 안다는 것은 앞을 내다보고 錯誤를 다 시 빚지않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또한 先祖들의 文化等에 關한 史料는 오늘과 來日을 살 찌게 하는 좋은 靈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體驗이 많이 쌓인 醫師들의 處方이 효험이 크 듯 4半世紀를 國會史와 더불어 지내온 國會速記 人들의 생각과 經驗을 알아보면 무엇인가 우리

速記人들의 未來를 위한 신기한 秘方이 내려질 것이란 確信을 갖고 힘겨운 作業을 해보기로 作定한 것이다.

事實 우리 韓國의 速記歷史도 1909년에 朴如一씨가 「하와이」에서 펴낸 「朝鮮速記法」을 嚆矢로해서 70餘年이 經過하였지만 日帝의 우리말 抹殺政策으로 말미암아 명백한 부지하다가 解放을 계기로 비로소 實用化되기에 이르렀고 國會가 그 實用의 大宗을 이루면서 成長하여 왔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제 國會速記人들이 解放과 더불어 史錄作成의 기수로서 일해온지 30餘年에 이르러 드디어 靑年期를 맞게 된 것이다.

이때를 당하여 우리 速記人들 一國會速記士一은 한번 지난날을 돌아보고 지금을 살펴 앞을 내다 보아야하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이 미친 것이다.

速記人의 生活觀과 內外生活, 速記職에 대한 評價, 自記評價, 將來에 대한 平素의 見解와 意見을 調査하여 診斷하고자 前述한 바와같이 本研究를 試圖한 것이다. 그러나 항상 統計를 잡고 푸는 일은 자칫 마술에 걸려들 위험을 갖고 있어 큰 잘못을 범하기 쉽다고들 한다. 어떻게 하면 統計의 眞實性을 찾아 公正하게 分析하고 意見의 求心點을 發見하여 評價를 내릴까에 많은 苦心을 했다. 또한 筆者는 統計의 專門家도 아니고 뜻나기 아마추어로서 다만 10餘年을 國會速記士로 지내면서 얻은 약간의 體驗만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過欲뿐이어서 意欲과 效果와 의 사이가 어느程度 좁혀질지는 疑問이며 또한 이점이 두렵기도 한 것이다.

그리하여 筆者는 이 글을 쓰면서 언제나 祈禱하는 자세로서 임하였음을 솔직하게 고백해 둔다. 아직도 讀者들 눈에는 論者의 無能과 不德으로 많은 오류—公正치 못한 分析이나 편파적인 評價—를 發見하게 될는지 모르겠다. 이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많은 諒정을 주기 바란다.

그러면 設問資料의 作成으로부터 살펴 볼까

한다.

(1) 設問의 作成

1973年 1月 5日부터 2月 15日까지 約40日間 速記人들의 生活과 周邊을 면밀히 檢討하여 80 問答에 亘한 資料를 모아 이 中 48問答을 취합 하여 設問書를 作成하였다.

設問應答에 있어서 筆者單獨의 創出로 일어나 는 主觀性排除를 위하여 統計關係者들의 意見을 參酌하였다.

(2) 設問에 對한 調査

이미 머리에서 言及하였으므로 本章에서는 說明을 省略하겠다.

(3) 設問資料의 分析方法

우선 分析表作成에 있어서 性別, 在職年數別로 나누어 分析하였고 年齡別分類는 5年미만의 在職年數와 30歲以下の 年齡層이 25名으로 같이 나타났기에 年齡別分析은 省略하였다.

또한 總79名對比表를 삽입하여 全體를 橫으로 一括 目賭하도록 하였고 總數人員은 百分率로 나누어 從的으로 順位와 「퍼센테지」를 파악하기 에 간편하도록 하였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應答가지수가 많은 것과 적은 것에 있어서 그 比率를 보면 全體的으로 前者는 %가 내려가고 後者는 %가 올라가는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各問題들 間의 橫的인 連結分析은 그 各問題의 應答順位에 먼저 主眼을 두고 比較하였다.

그리고 本分析表의 誤差는 ±0.5이며 소수점 두자리에서 四捨五入하였다.

49. 問 集計의 資料로 다음 세가지만 表示해 주십시오.

問	①선생님은	
	人員	%
答		
計	79	100
1. 男性이다	59	75
2. 女性이다	20	25

問	②선생님은	
	人員	%
答		
計	79	100
1. 30세미만	25	32
2. 30세이상	54	68

問	③선생님의재직연수는	
	人員	%
答		
計	79	100
1. 5년 미만	25	32
2. 10년미만	42	53
3. 10년이상	12	15

2. 本 論...分析研究

題(1) 生活指針

速記人特有의 健康, 忍耐, 誠實

國會速記人들이 모여 生活하면서 各者 생각 하고 있는 生活觀은 무엇일까. 무엇을 指針으로 하여 살아나가는 것일까. 그 底力을 이루는 精神的 支柱를 모아보고자 第1問으로 提示해본 結果는 크게 健康, 忍耐, 誠實의 順으로 나타났다.

健康한 體力으로 忍耐와 誠實을 指針삼아 生活하고 있음을 알수 있겠다.

그러면 좀더 具體的으로 알아보자.

第1問의 應答이 모두 조금씩은 重要한 것이란 一部 應答者의 意見을 들어서만이 아니라 26가지의 應答中 단지 3가지만 表示하도록 要求한 것이 應答者에게 苦心을 가져오게 한듯싶다.

하지만 「健康 17.9%, 誠實 16.6%, 忍耐 10%」順으로 나타난 結果는 아무래도 速記人 共通으로 共鳴하는 座右銘이 아닐까 느껴진다. 어쩌면 健康, 誠實, 忍耐는 곧 速記라는 技倆을 갖고 生活하는데는 반드시 必要한 座標로 간주할 수도 있겠다.

첫째로 健康문제를 보면 「過重한 速記執務를 할때 81% 一第1順位一나 身體上에 피로와 스트레스현상으로 地障을 받는다(題21)」고 나타난 바와같이 심각한 職業病的인 自覺症狀에서 제일로 浮上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더우기 健康을 在職年數別로 보면 5年미만이 11%, 10年미만 19%, 10年以上이 25%로서 勤務年限이 많을수록 健康을 몹시 重要視하고 있는 點은 注目할만하다.

誠實 또한 5年미만 14%, 10年미만 16%, 10年以上 21%로 在職年數가 높을수록 이를 더욱 強調하고 있다.

男女別로 忍耐의 重要度를 比較하니 男性이 8%, 女性이 18%로서 女性쪽이 忍耐에 더 마음

을 쓰고있다. 이러한 경향은 速記를 매개체로 관련시켜 論할때 이들은 처음부터 速記를 익히기에 男性들보다 훨씬 고된 忍耐力을 절감한데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하는 짐작도 간다.

한가지 더 看過할 수 없는 點은 「家庭의 平和」 5.2%, 第4의 順位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個人生活 安定의 比重이 높아가고 있는 一般社會 傾向에 影響이 있다 하겠다.

速記人들의 強點이면서 한편 性格이 깔끔하다

1. 問 선생님은 日常生活하시는데 平素에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3가지 이내로 표시)

應 答	區 分	總 數		性 別						在 職 年 數 別								
		人 員	%	男		79 對 比	女		79 對 比	5年미만		79 對 比	10年미만		79 對 比	10年以上		79 對 比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總 計		228	100	173	100	219	55	100	70	72	100	91	127	100	161	29	100	36
1. 忍 耐		23	10	13	8	16	10	18	13	10	14	12	11	8	14	2	8	3
2. 機 敏		4	1.7	3	2	4	1	2	1	1	1	1	2	2	3	1	3	1
3. 誠 實		38	16.6	29	17	36	9	16	11	11	14	14	21	16	27	6	21	8
4. 理 解 力	賤	11	4.8	8	5	10	3	5	4	4	6	5	4	3	5	3	11	4
5. 實 驗 力		9	3.9	9	5	11	0	0	0	2	3	3	5	4	6	2	8	3
6. 經 驗 力		4	1.7	4	2	5	0	0	0	0	0	0	4	3	5	0	0	0
7. 能 力 質 心		3	1.3	2	1	3	1	2	1	2	3	3	1	1	1	0	0	0
8. 素 質 心 力		1	0.4	1	0.5	1	0	0	0	0	0	0	1	1	1	0	0	0
9. 良 心 力 仰 賴 容 量		11	4.8	8	5	10	3	5	4	3	4	4	8	6	10	0	0	0
10. 精 意 力	1	0.4	1	0.5	1	0	0	0	0	0	0	1	1	1	0	0	0	
11. 信 賴 容 量	2	0.8	2	1	3	0	0	0	1	1	1	1	1	1	1	0	0	0
12. 信 容 量	8	3.5	4	2	5	4	7	5	4	6	5	3	2	4	1	3	1	
13. 寬 容 容 量	4	1.7	2	1	3	2	4	3	2	3	3	1	1	1	1	3	1	
14. 事 業 意 志 力	9	3.9	2	1	3	7	13	9	8	11	10	1	1	1	0	0	0	
15. 友 愛 力	9	3.9	7	4	9	2	4	3	2	3	2	6	5	8	1	3	1	
16. 友 愛 力	4	1.7	4	2	5	0	0	0	2	3	3	2	2	3	0	0	0	
17. 背 景 斗 勢 力	1	0.4	0	0	0	1	2	1	0	0	0	0	0	0	1	3	1	
18. 勇 氣 斗 推 進 力	5	2.1	5	3	6	0	0	0	3	4	4	2	2	3	0	0	0	
19. 愛 國 心 力	2	0.8	2	1	3	0	0	0	0	0	0	2	2	3	0	0	0	
20. 財 力 識 識	10	4.3	7	4	9	3	5	4	2	3	2	8	6	10	0	0	0	
21. 學 識 康 操	3	1.3	3	2	4	0	0	0	2	3	2	1	1	1	0	0	0	
22. 健 康 操 樂	41	17.9	36	21	45	5	9	6	8	11	10	26	19	33	7	25	9	
23. 志 操 樂 力	2	0.8	2	1	3	0	0	0	0	0	0	2	2	3	0	0	0	
24. 安 樂 力	1	0.4	0	0	0	1	2	1	0	0	0	0	0	0	1	3	1	
25. 創 意 力	9	3.9	8	5	10	1	2	1	3	4	4	5	4	6	1	3	1	
26. 家 庭 的 平 和	12	5.2	10	6	13	2	4	3	2	3	3	9	7	12	1	3	1	
<무 응 답>		1	0.4	1	0.5	1	0	0	0	0	0	0	0	0	1	3	1	

는 所聞을 듣는 證據는 여기에 나타난 「背景과 勢力 0.4% — 認定誤差±0.5%以下—가 아닐까 싶다. 이 比率은 바로 背景과 勢力을 排擊하는 證左이니까.

題(2) 餘暇利用

讀書와 旅行과 스포츠에 爲主

家族과 餘暇를 즐기는 편이 11%로 第4位. 「家長은 家族과 함께 週末을 즐기는 待望의 70年代」라는 朴大統領의 年頭敎書가 귀에 익듯이 는 누구에게나 소망스러운 바람이전만 「家庭事로 夫人과 함께 동반하여 外出하기가 어렵다고 37%—빈도順位 1—나 체크한 點(題34)」과 아울러 國會速記人들의 家庭的 환경개선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經濟的 餘件, 家庭事, 東洋的 慣習等 理由야 따지면 많겠지만 무엇인가 改善되어야 할 提示라고 본다.

旅行 낚시 飲酒等이 33%, 讀書 22%, 身體단련 17%順位. 自身の 신체단련과 놀이로 餘暇

를 보내는 速記人들이 50%,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健康에 힘을 쓰며 餘暇를 즐기는 신중파.

讀書等 工夫를 하는 편 가운데 在職年數 5年 미만이 48%로 젊은 層이 向學에 注力하고, 10年 미만이 8%로 結婚前後에 急降下, 그리고 10年以上이 22%로서 서서히 讀書熱이 이는 추이는 어느程度 그 妥當性을 發見하게 된다. 더구나 男女對比 各各 16%, 41%로 女性讀書熱이 男性에 比하여 압도적으로 우세한 사실은 잘라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男性들은 對外活動과 經濟的 努力等 分散된 活動分野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思料된다.

또한 餘暇를 經濟面에 利用하는 사람들이 8%. 이들은 全部 10年程度 근무한 사람들 —色뿐으로 30歲 내지 35歲 사이에서 經濟的 기반을 닦기에 注力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問 선생님은 餘暇를 대략 어떤 方面으로 많이 活用하십니까? (해당란 모두표시)

區 分 應 答	總 數		性 別						在 職 年 數 別								
	人 員	%	男		79 對 比	女		79 對 比	5年미만		79 對 比	10年미만		79 對 比	10年以上		79 對 比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總 計	90	100	68	100	86	22	100	28	27	100	34	49	100	62	14	100	18
1. 身體 단련을 위 한 운동으로 (각종스포츠)	15	17	13	19	16	2	9	3	3	11	4	10	20	12	2	14	3
2. 心身을 위기 위 한 놀이로 (여행, 낚시, 음주 등)	30	33	26	38	33	4	18	5	5	19	6	18	38	23	7	50	9
3. 讀書等工夫를 한다	20	22	11	16	14	9	41	11	13	48	17	4	8	5	3	22	4
4. 財力을 쌓기 위 한 方面으로	7	8	7	10	9	0	0	0	0	0	0	7	14	9	0	0	0
5. 親知를 만나는 일로	7	8	3	5	4	4	18	5	5	18	6	2	4	3	0	0	0
6. 家族과 함께 즐 기는 일로 (야유통 등)	10	11	7	10	9	3	14	4	1	4	1	7	14	9	2	14	2
<무 응 답>	1	1	1	2	1	0	0	0	0	0	0	1	2	1	0	0	0

題(3) 計劃性

計劃的인 生活者가 절반이지만 每日 每日의 計劃性에 焦點을 두어 調査를 하였다. 每日의 計劃을 또렷이 實踐해 나간다면 그것이 쌓여 1年

計劃도 모두 實踐하는 結果가 되기 까닭이다.

우리는 흔히 5個年計劃이니 10個年計劃이니 하는 長期間의 計劃樹立은 많이 들어 왔으나 個人의 每日計劃은 별로 알려진 편이 아니어서 오

히려 무관심한 면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調査에서도 55%의 사람이 別計劃없이 시의에 따라 지내고 있음이 發見되었다.

특히 「每日計劃」이란 말은 「1年이면 1年計劃 가운데서의 하루計劃」으로 應答者들이 理解하고 記入했으면 하는 것이 筆者의 意圖였는데 設問의 內容上 그러한 뜻이 內包되었음을 간파하고 記入했으리라고는 믿기 어렵다.

每日計劃을 세운다고 주장한 45%의 사람들 중에도 다만 20%—45%의 百分率—의 사람만이 「每日計劃을 全部 實踐」하는 程度이고 나머지 80%의 사람은 「每日計劃의 一部(一部가 어느程度인가는 알 수 없지만)만 實踐」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여하튼 後者의 一部實踐은 實踐하기에 過한 計劃을 세웠거나, 具體적으로 自己의 能力에 맞추어 要領있게 計劃을 세우지 못했거나, 원래 自身속에 實踐力을 저해하는 要素가 숨어 있거나, 하는 等으로 判斷되어 改善策이 要望된다.

「수시에모로 活動하는 사람」이 22%의 比率로 即興性의 生活者가 많음은 기민하고 재치있는 活動의 一面이 있는 反面에 機會主義的 타일므로 변모할 수 있는 위험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기 까닭에 自身의 지속적 발전을 방해하는 要素라는 點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여겨진다.

아이디어開發에 努力하는 사람은 11%로 다소 比率이 낮은 편이지만 이 應答에 있어서도 약간의 言及을 하자면 사실 每日의 計劃을 차근차근하게 實踐한다는 근거가 없이 아이디어 개발에 막연하게 進력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公상으로 그칠 公산이 크다고 본다. 創意力은 그만큼 짜임새있는 自己의 「계획」을 한가지 한가지 규모있게 「實踐」해 나가는 過程에서 비로소 인스피레이션이 떠오르듯 作열하는 것이라는 點은 이미 여러모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별 생각없이 지내고 있다」고 솔직하게 認定하고 있는 사람이 22%, 在職年數가 많을수록—5年미만 12%, 10年미만 24%, 10年以上 33.5%—점점 別 생각없이 지내고 있는 사람의 比率이 높

다. 이러한 推移는 냉혹하게 따져서 自己放棄이며 精神的인 硬化現象이라고 볼 수 있는 赤信號인 것이다.

換言컨대 每日 計劃을 세워서 자신있게 實踐한다는 9%以外的 사람들中에는 實踐力이 강인하지 않거나, 임시변통의 즉흥성이거나, 약간 公상적이거나, 무로하게 지내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파고드는 異物質—毒素—이 全然 없다고 斷定지을 수 있을까?

특히 題3과 題12의 相關表를 檢討해 보면 어떤 짐작을 낳게 해 준다.

計劃을 全部 實踐하지도, 計劃조차 세우지도 않고 지내는 사람들은 懷疑와 不安을 느끼고—題12의 79對比 51.9%中 49%—싫증과 태만에 빠지는 현상을 빚고 있다(題12의 79對比 24%中 20%). 그中에도 별 생각없이 지내는 사람들은 더욱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以上の 結果를 놓고 볼때 지나친 表現 일는지 두렵지마는 萬의 1이라도 無氣力과 優柔 不斷과 沈滯란 박테리라가 이곳에 棲息하기 좋은 溫床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다만 한가지 筆者나름대로 어리석은 處方을 생각할수 있는 것은 以上과 같이 나타난 취약點을 速記人特有的 潜在的 強點인 忍耐와 誠實(題1에서)로 메꾸어 보자는 것이다. 즉 忍耐와 誠實이란 精神武裝—持久力—으로 회의와 불안과 싫증과 태만이란 流行病—精神的職業病—의 症狀을 治療해보면 어떨까 하는 所見이다.

題(4) 活動의 障礙要素

經費와 能力의 不足

計劃을 세우거나 餘暇를 善用하거나 間에 自己가 하고자하는 欲求와 일을 방해하는 要素는 무엇일까를 알아본 結果 經費不足이 50%, 能力不足이 19%, 自身의 無氣力이 1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諸般與件을 보아 經濟的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는 點을 勘案할 때 個人生活도 運轉치 못하여 무엇을 하고자 해도 經費調達이 어려우리라는 것은 一應 首肯이 간다. 하지만 消費性向을 알아보려는 意圖도 題40에서

3. 問 선생님은 매일 日課를 어떻게 지내십니까?

應答	區分		性 別						在 職 年 數 別								
	總 數		男		79 對 比	女		79 對 比	5年미만		79 對 比	10年미만		79 對 比	10年이상		79 對 比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總 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1. 매일 계획을 세워 전부 실천하고 있다	7	9	6	10	8	1	5	1	1	4	1	4	10	5	2	17	3
2. 매일計劃의 일부 만 실천하는 정도 이다	29	36	19	32	24	10	50	12.5	13	52	17	12	28	15	4	33.5	5
3. 매일計劃은 안 세우고 수시 메모 하여 활동한다	17	22	10	17	13	7	35	9	8	32	10	8	19	10	1	8	1
4.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에 역점을 두고 노력한다	9	11	9	15	11	0	0	0	0	0	0	8	19	10	1	8	1
5. 별생각없이 지 내고 있다	17	22	15	26	19	2	10	2.5	3	12	4	10	24	13	4	33.5	5

3 問 과 12 問 의 相 關 表

12問		선생님은 本職에 勤務하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3問	12問答	計		1. 보람과 즐거움을 느낀다			2. 회의와 불안이 쌓인다			3. 더욱 성실 하게 근무 한다			4. 실증이나 고태 만 해진다			무 응 답
		人 員	%	人 員	%	79 對 比	人 員	%	79 對 比	人 員	%	79 對 比	人 員	%	79 對 比	
선 생 님 은 매 일 日 課 를 어 떻 게 지 내 시 م 까	計	79	100	5	100	6.3	41	100	51.9	8	100	10.2	19	100	24	6
	1. 매일 계획을 세워 전부 실천하고 있다	7	9	1	20	1.3	2	5	2.5	1	12.5	1.3	3	16	3.8	0
	2. 매일計劃의 일부 만 실천하는 정도 이다	29	36	3	60	3.8	20	49	25.3	3	37.5	3.8	2	10.5	2.5	1
	3. 매일計劃은 안 세우고 수시 메모 하여 활동한다	17	22	0	0	0	6	15	7.6	3	37.5	3.8	4	21	5	4
	4.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에 역점을 두고 노력한다	9	11	0	0	0	5	12	6.3	1	12.5	1.3	2	10.5	2.5	1
	5. 별생각없이 지 내고 있다	17	22	1	20	1.3	8	19	10.1	0	0	0	8	42	10.1	0

그 應答中 66%의 많은 사람이 아주 가끔 茶를 마신다 —낭비성향이 거의없다—고 표시한 것과 연결하여 생각해도 낭비없이 지내는 이들이 이토록 經費不足을 느낀다는 사실은 速記人들의 報酬가 저축하기에는 어려운정도가 아닌가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한편 自身の 能力不足이거나 無氣力으로 因한 活動障礙가 32%로 나타난 사실은 自身の 能力을 깎아내리는 自嘲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題3에서 나타난 「計劃性的 결여」와 相關하여 볼

때 自身을 計劃안에 몰아넣는다든지 하여 분위기를 바꾸어보는 방법을 講究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外的條件이 10%로 드러난 點은 막연한 內容이라 파악하기 어렵지만 家庭환경이나 기타 개인주변의 조건이 아닌가 思料된다.

한가지 더 부연할 것은 在職年數가 높을수록 經費不足이 가장 活動에 장애가 된다고 強調하고 있는데 —5년미만 40%, 10년미만 55%, 10년이상 50%— 이는 부양가족이 늘어감에 따라

教育費, 生活費等의 支出이 많아지는 反面, 報酬가 이러한 諸支出에 현저히 따라가지 못함으

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判斷되어 首肯이 간다.

4. 問 선생님은 현재 하시는 活動(일하고자 하는 目的 포함)에 장애가 되는것은 특히 다음 어느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區分 應答	總數		性 別						在 職 年 數 別								
	人員	%	男		79 對比	女		79 對比	5年미만		79 對比	10年미만		79 對比	10年이상		79 對比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總 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1. 時 間 不 足	4	5	4	7	5	0	0	0	1	4	1	3	7	4	0	0	0
2. 經 費 不 足	39	50	33	56	42	6	30	7.5	10	40	13	23	55	29	6	50	8
3. 能 力 不 足	15	19	9	15	12	6	30	7.5	5	20	6.5	8	19	10	2	16.7	2.5
4. 健 康 不 足	2	2.5	1	1.5	1	1	5	1.2	1	4	1	1	2	1	0	0	0
5. 自 身 的 無 力	10	13	4	7	5	6	30	7.5	5	28	6.5	3	7	4	2	16.7	2.5
6. 外 界 的 條 件	8	10	7	12	9	1	5	1.2	2	8	3	4	10	5	2	16.7	2.5
<無 應 答>	1	1.5	1	1.5	1	0	0	0	1	4	1	0	0	0	0	0	0

題(5) 速記를 배운 動機

우연히, 호기심으로

速記士가 되기 위하여 速記를 배웠다는 사람은 19%로 세번째이고 모두가 우연하게 (47%) 호기심으로(2.4%) 速記를 배웠다고 應答하고

있다. 그러나 職業은 우연이건 호기심이건 速記士로 落着이 된 것이다. 即 애초에 너무나 目的意識을 外面한채 速記士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음미해 볼 문제이다.

5. 問 선생님께서 速記를 배우게 된 動機는 무엇입니까?

區分 應答	總數		性 別						在 職 年 數 別								
	人員	%	男		79 對比	女		79 對比	5年미만		79 對比	10年미만		79 對比	10年이상		79 對比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總 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1. 취 미 로	1	1	0	0	0	1	5	1	1	4	1	0	0	0	0	0	0
2. 速記士가되기 위해서	15	19	9	15	11	6	30	8	6	24	8	6	14.3	8	3	25	4
3. 호 기 심 으 로	19	24	15	26	19	4	20	5	3	12	4	14	33.3	18	2	16.7	2
4. 우 연 히	37	47	28	47	36	9	45	11	14	56	18	17	40.5	21	6	50	8
5. 기록상의 도움 을 얻기 위해서	6	8	6	10	8	0	0	0	1	4	1	4	9.5	5	1	8.3	1
<無 應 答>	1	1	1	2	1	0	0	0	0	0	0	1	2.4	1	0	0	0

題(6) 適 性

努力과 文章理解力이 으뜸

많은 사람들이 速記에 關한 適性은 무엇보다 빠른 것이 으뜸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速記를 배운 많은 速記人들은 「민활」을 最下位의 適性(4

%)으로 指摘하고 있다.

먼저 努力을 많이 하고(30%) 文章理解力이 있어야 하며(23%) 또한 끈질긴 忍耐가 加味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素質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既成速記人들의

이러한 處方은 총명하고 영리한 두뇌에 聽覺과 視覺이 發達하고 또한 민첩한 손여를 度外視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에 더 文章理解가 빨라야 하고 努力에 努力을 거듭하는 忍耐力을 갖추어야만이 適格者로 指目할 수 있다는 分析으로 생각된다.

한가지 觀點의 差異는 男性보다는 女性이 忍

耐를 더 強調(男17%, 女26%)하고 있으며 文章理解力에 있어서는 在職年數가 5年미만 16%, 10年미만 26%, 10年以上 31%로 나타나 速記經驗이 많을수록 文章理解에 重點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實務에 從事하면서 語意를 많이, 빨리 理解해야만 正確히 記錄할 수 있다는 경험에 입각한 意思表示로 보아진다.

6. 問 선생님은 경험상 속기를 익히는데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해당란은 모두 표시)

應 答	區 分		總 數		性 別						在 職 年 數 別						
					男		79 對 比	女		79 對 比	5年미만		79 對 比	10年미만		79 對 比	10年以上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總 計	166	100	120	100	152	46	100	58	63	100	80	80	100	101	23	100	29
1. 문 장 이 해 력	38	23	31	26	39	7	15	9	10	16	13	21	26	26	7	31	9
2. 소 정 의 學 力	14	8	11	9	14	3	7	4	4	6	5	6	7.5	8	4	17	5
3. 총 명 령	15	9	11	9	14	4	9	5	5	8	6	6	7.5	8	4	17	5
4. 노 령 력	49	30	35	29	45	14	30	17	16	25	20	29	36	36	4	17	5
5. 민 활	7	4	5	4	6	2	4	3	5	8	6	2	3	3	0	0	0
6. 인 내 실	32	19	20	17	25	12	26	15	14	22	18	15	19	19	3	13	4
7. 성 실	11	7	7	6	9	4	9	5	9	15	12	1	1	1	1	5	1

題(7) 難 易 度

—같은 努力으로 外國語 한가지는 능숙하게 구사할수 있다—

國會 速記人들이 速記를 얼마나 어렵게 보는가는 應答表示와 같이 英語等 外國語 한가지는 능숙하게 구사할 程度라고 본 사람이 46%가 되고 司法試驗等 어떤 部門의 學問이든 成功하였을 것이라고 장담한 사람이 27%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速記學術의 定規履修期間은 1年이고, 常識이나 知識은 많을수록 익히기에 容易하며 速記번역의 正確度가 올라간다는 것이 通說로 되어 있다. 高試等の 準備期間은 아무래도 3年 내지 5年은 잡아야 할 것이고, 外國語 한가지를 능숙하게 구사하려고 해도 2年 내지 3年은 消要되리라고 본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1年동안의 速記學術習得의 努力과 比重을 3年 내지 5年이 消要되는 司法試驗과 2,3年 消要되는 外國語한

가지의 熟達과 同格으로 같이 보고 있는 사람이 73%나 되는것은 速記術習得의 至難함을 強調하고 있는 所以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原因을 잠깐 더듬어 보기로 한다. 첫째는 우리말의 構造가 複雜多技하고(尊稱語等) 어려움에 따라 速記術도 必然的으로 어려운 點이 있겠고,

둘째는 우리가 배운 한글과는 全然 다른 새로운 記號로 이루어진 글자를 익혀야 된다는 점이 겠고,

셋째는 速記記號—글자—自體의 어려움이 문제이며,

넷째는 速記術教育期間이 대개 1年으로 되어 있는데 이 期間으로서는 專門速記士가 될수있도록 익히기에는 甚한 負擔이 간다는 것이다. (國會速記士養成所 1年, 東邦速記學院 1年, 日本衆·參議院速記者養成所 2年)

速記術을 習得하여 專門速記士가 되려면 以上

의 첫째 둘째문제의 어려움은 감수해야만 될 것 같다.

다만 前述한 세째문제는 既成速記人, 關係教育者, 學者들의 研究課題로 보아진다.

國會速記人들도 自身이 배운 速記術—速記法式—가운데 改良할 點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97%나 되고 있어(題8에서) 바로 그 改善의 餘地를 發見하게 된다.

速記를 가장 어렵게 여기는 男女의 對比를 살펴보면 男性이 24%, 女性이 35%로 女性쪽이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速記를 「比較的」 어렵게 보는 사람중 在職年數가 높을수록 어렵게 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比率—5年미만 40%, 10年미만 43%, 10년 이상 67%—은 첫째로 國會로의 登龍門이 最近에 들어 넓어졌다는 理由도 되겠고 둘째로 速記術이 많이 改善되어 배우기가 수월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나 이제나 國會登用의 어려움에 큰 차이가 없다는 國會當局의 解明이고 보면 速記術向上을 그 主因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上述한 速記術教育期間 —넷째—에 대

하여 잠깐 言及하면 文章理解力이 速記術을 익히는데 대단히 重要하다—題6에서 두번째 順位로 23%—고 보는 國會速記人들의 意見을 參酌하더라도 同教育期間 1年은 不足하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다. 即 文章力을 기르려면 所定의 知識을 쌓기위하여 速記術習得과 병행하여 充分한 教養科目의 教育이 必要한 것이다.

그런데 速記術習得하나로도 꾸준한 努力—題6에서 第1順位로 30%—과 忍耐—題3에서 第3順位로 19%—를 적어도 1年동안은 들여야 專門速記士가 될 수 있다는 點을 勘案할때 現行의 1年間에 速記術과 同時에 教養科目의 習學은 無理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速記를 배우고자 할때 우리말의 어려움에 따른 速記의 어려움이라든가, 새로운 速記記號의 익숙으로 因한 어려움이라든가 하는 人爲以上の —거의不變의— 어려움은 감수해야겠지만, 速記術自體의 改善으로 어려움을 시정할 수 있다든지, 速記術習得期間을 延長하여 어려움을 덜다든지, 하는 人爲的인 改善策은 꾸준히 모색해나가야 될 것으로 思料된다.

7. 問 선생님은 속기를 배우는 같은 노력으로 다른 部門에 노력을 했으면 어느정도 완성하였으리라고 보십니까?

應 答	區 分		性 別						在 職 年 數 別								
	總 數		男		79 對比	女		79 對比	5年미만		79 對比	10年미만		79 對比	10年이상		79 對比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總 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1. 어떤 部分의 工夫든 성공하였으리라고 본다 (사법시험등)	21	27	14	24	18	7	35	9	7	28	9	13	31	16	1	8	1
2. 英語 등 외국어 한가지는 능숙하게 구사하였을 것이다	36	46	29	49	37	7	35	9	10	40	13	18	43	23	8	67	10
3. 어떤 部門의 工夫든 成功하리라고 단정할수 없다	20	25	15	25	19	5	25	6	8	32	10	10	24	13	2	17	2.5
<무 응 답>	2	2	1	2	1	1	5	1	0	0	0	1	2	1	1	8	1

題(8) 速記法式的 改良

最近에 많은 改良

題7에서와 같이 在職年數가 높을수록 速記術習得에 대하여 比較的 어렵게 보는 사람이 많은

比率를 차지한 것처럼 本文에서도 速記法式의 「많은 改良」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 勤務年數가 많을수록 높은 比率—5年미만 28%, 10年미만 60%, 10年以上 59%—을 시현하고 있다. 이는 뒤집어서 言及하면 速記術—速記法式—을 많이 改良했으면 좋겠다는 比率이 在職年數가 짧을수록 낮아짐으로서 最近에 速記術을 배운 사람일수록 速記術을 쉽게 보는 경향으로

「速記法式의 改良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는 증좌이기도 하다.

한편 거개의 國會速記人들이 速記法式을 몇가지以上 改良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한 사실(97%)을 勘案할 때 將來의 速記學徒를 위해서나 速記學術의 發展을 위해서도 앞으로 速記法式은 繼續研究改良補完되어 나가야 할것으로 判斷된다.

8. 問 선생님께서 습득한 速記法式은 앞으로 改良할 點이 있다고 보십니까?

應 答	區 分		性 別						在 職 年 數 別								
	總 數		男		79 對 比	女		79 對 比	5年미만		79 對 比	10年미만		79 對 比	10年以上		79 對 比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總 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1. 改良할 點이 많다고 본다	39	50	36	61	46	3	15	4	7	28	9	25	60	32	7	59	9
2. 몇가지 改良했으면 좋겠다	37	47	21	36	27	16	80	20	17	68	22	15	36	19	5	41	6
3. 改良할 點이 거의 없다고 본다	2	2	1	1.5	1	1	5	1	1	4	1	1	2	1	0	0	0
<無 應 答>	1	1	1	1.5	1	0	0	0	0	0	1	1	2	1	0	0	0

題(9) 職業의 適性

適性에 맞지 않는다 28%

71%의 사람들이 速記職業이 適性에 맞다고 보고있다. 그리고 適性에 맞다고 잘라서 主張하고 있는 사람은 男性(4%)에 比하여 女性(35%)이 많고 在職年數가 적을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在職年數가 높을수록 適性에 맞지만 願하는 職業이 아니라거나 —5年미만 64%, 10年미만 52%, 10年以上 75%— 또는 適性에 맞지 않는 職業이라고 술회하고 있다.

어쨌든 適性에 맞지만 願하는 職業이 아니라고 다소 유감을 표시한 사람이 59%로 가장 많은 것이 문제의 焦點이 되겠다. 어떠한 條件으로 해서 願하는 職業이 아니라고 했을까.

速記士가 되기위해서 速記를 배웠다(19%)는 사람보다도 우연히, 호기심으로 배우게 되었다(71%)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題5에서)을 감안할때 速記를 배우게된 動機부터 뚜렷

한 目的없이 始作하였는데 速記職業으로까지는 더욱 생각을 안했을 것이라고 짐작될수도 있어 上述한 理由의 하나가 되겠으나 이는 速記術을 배운 사람은 누구나 經驗하듯 速記術을 배우는 過程에는 國會의 速記士가 되기를 가장 원하는 것이므로 上述한 理由에 대한 充分條件이 되기에는 適合하지 않다. 따라서 좀더 다른 分野 即 國會速記人 스스로의 價値基準 또는 內, 外條件 등의 여러가지 分野에서 理由를 찾아야겠기에 이것은 차차 문제를 살피나가면서 應答을 求할까 한다.

題(10) 矜持와 長點

矜持와 懷疑 半半

會期中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休會時 약간의 기간동안 讀書研究等に 熟中하여 知識을 쌓을 수 있다는 事實에 40%의 가장 많은 사람이 滿足을 表示하고 있다. 速記職業이란 豫算國會等 過重한 執務를 繼續할 때 81%의 사람이 피로와 스트레스현상으로 地장을 받는다고 苦衷을 털어

9. 問 선생님은 현재의 速記職業이 선생님의 適性에 맞는 職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區分 應答	總數		性 別						在 職 年 數 別								
			男		79 對 比	女		79 對 比	5年미만		79 對 比	10年미만		79 對 比	10年이상		79 對 比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79 對 比	人員	%	79 對 比	人員	%	79 對 比	人員	%	79 對 比	人員	%	79 對 比
總 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1. 適性에 맞는 다	9	12	2	4	3	7	35	9	6	24	8	2	5	3	1	8	1
2. 適性에 어느정도는 맞지만 원하는 職業은 아니다	47	59	35	59	44	12	60	15	16	64	20	22	52	28	9	75	11
3. 適性에 맞지 않는 직업이다	22	28	22	37	28	0	0	0	2	8	3	18	43	22	2	17	3
<無 應 答>	1	1	0	0	1	1	5	1	1	4	1	0	0	0	0	0	0

놓고 있듯(題21에서) 짧은 時間內에 말을 휘어잡아 말의 速度처럼 빨리 글자—速記—로 表記하는 것이니 만큼 극심한 신경소모로 因하여 직업병적인 피로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다음 會期에 對備한 業務促進과 能率을 위하여 健康을 調節하면서 讀書과 研究等으로 知識을 쌓아 文章理解力을 增進(速記實力向上) 시키고 따라서 速記人의 資質向上을 기할 수 있다고 하는 與件은 國會速記人을 가장 만족하게 하는 要因이라고 간주된다.

다음으로는 議會史를 꾸미는 役軍이라고 自負하는 사람이 17%로 두번째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같은 比率인 17%의 사람이 自身들의 職業에 대하여 自負도 矜持도 갖지 않는다고 述懷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政治人들을 가까이 대한다는 點에서도(5%), 國會에 勤務한다는 事實에 대해서도(8%) 약간의 好感을 가질 뿐 別로 매력은 갖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자랑으로 여기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速記人끼리 모여 서로 돕고 協調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6%에 不過하여 速記人들의 조용한 合心과 協力에 부러움을 느낄 程度로 알려진 世評과는 좀 거리가 멀어 의아스럽게 생각되나, 이러한 냉담한 反應은 速記人 스스로 「만족치 못하고 있는 與件」—題11에서 創意力의 未發揮 30%, 人事面 47%, 處遇 11%로 주변의 여건에 불만족—에 묻혀 귀중하

지만 너무 많고 當然性이 內在한 空氣의 고마움을 가끔 잊게 되듯이 速記人間에 相扶相助하는 美德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이러한 反應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判斷된다. 또 한가지 親知, 또는 집안의 慶吊事에 時間나는대로 參席한다고 表示한 사람이 68%의 압도적인 比率(題28에서)로 나타났는데 이中에는 速記人끼리 서로 돕고 協調한다는 間接측정치가 內包되었으리라고 짐작해도 무방하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處遇가 좋다고 意見을 表示한 사람은 5%로 全員이 女性이고 男性들은 Zero%, 換言컨대 男性의 立場으로서는 處遇가 좋다는 點에 누구도 승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題(11) 不滿과 短點

慾望과 不滿은 比例한다는데

무릇 사람이란 다소의 不滿과 劣等感을 느껴야 發展할 수 있는 素地가 있다고 한다. 전연 滿足과 肯定的 立場으로만 生活한다면 進취적 性격을 잃는다고 보는 이도 있다.

하지만 「人事交流나 昇級(47%)이 아니면 處遇(11%)라도 해달라」는 式의 主張이고 보면 문제는 자못 심각하다. 좀 과한 要求가 아닌가 하고 몇가지 調査를 하여 檢討하여보았다.

사람의 慾望과 不滿과의 關係에 있어서 자기 분에 넘게 慾望이 크면 否定的 不滿—妥當性을 缺한 不滿—이 많아 破壞的, 非生産的 性向이 되기 쉽고, 자기 能力에 걸맞는 慾望程度면 不滿

10. 問 선생님은 本速記職에 근무하면서 좋은점이 솔직하게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해당란은 모두 표시)

區分 應答	總數		性別						在職年數別								
	人員	%	男		79 對比	女		79 對比	5年미만		79 對比	10年미만		79 對比	10年以上		79 對比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總計	111	100	75	100	95	36	100	45	40	100	50	57	100	72	14	100	18
1. 定期國會等會 期中에集中的으 로일을하고休會 時에讀書研究等 을할수있는時間 이있다點이다	45	40	30	40	38	15	41	19	19	47	24	20	35	25	6	43	8
2. 議會政治史를 구민다는矜持를 갖고일한다는點 이다	19	17	10	13	13	9	25	11	8	20	10	8	14	10	3	21.5	4
3. 處遇가 좋다	5	5	0	0	0	5	14	6	4	10	5	0	0	0	1	7	1
4. 國會議員長官 을가까이대하면서 배우는點이 많다	5	5	4	5	5	1	3	1	0	0	0	5	9	6	0	0	0
5. 國會에 근무하 는사실을아직도 羨望의적으로아 는국민이 많다	9	8	6	8	8	3	8	4	4	10	5	4	7	5	1	7	1
6. 많은速記人끼 리모였다는點에 서서로 돕고 협조 가 잘된다	7	6	5	7	6	2	6	3	3	8	4	4	7	5	0	0	0
7. 별로 좋은점이 없다	19	17	18	24	23	1	3	1	2	5	2	14	24	18	3	21.5	4
<無應答>	2	2	2	3	2	0	0	0	0	0	0	2	4	3	0	0	0

中에도 肯定的인 不滿—妥當性있는 不滿—으로 서 建設的, 生産的 性向이라는 理論을 合當한 論理라고 받아들여 우선 慾望度를 題23에서 알아본 結果, 財力과 昇進을 취하는 커다란 慾望이라도 他人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良心을 外面하게 될때에는 그러한 慾望은 원치않는다고 意見을 表示한 사람이 91%나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自己 能力을 감안한 慾望을 지나 「道德的 慾望」—소극적 욕망—의 경지에까지 도달된 사람들이라고 보아 前述한 要求—人事交流 昇級, 處遇의 好轉을 希望—가 過慾에서 비롯된 提示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여기에 行政 能力+α(速記能力)=國會速記士라는 數式이 成立된다는 點을 考慮에 넣는다면 上述한 同要求가 「妥當性있는 不滿」임을 認定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判斷이 간다.

實로 創意力發揮의 不在에 가장 많은 사람

(30%)이 不滿을 表示하고 있고, 이 點을 어느 程度 解消시킬 수 있는 人事交流의 特정한 장벽에 27%의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어려운 昇進에 20%의 사람이 3번째의 短點으로 表示하고 있다. 더우기 在職年數가 높을 수록 昇進이 어려움을 短點—5年미만 5%, 10年미만 25%, 10年以上 24%—으로서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해가 거듭됨에 따라 昇進의 完만을 皮부로 직접 느끼게 되는 까닭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事實은 題9에서 速性에 맞는 職業이지만 願하는 職業은 아니라고 主張하는 사람(59%)들이 내세우는 이유 가운데 創意力을 많이 必要로 하는 職業이 아닌 點과 (30%) 昇級이 어려운點(47%)도 포함되리라고 생각할수 있겠고 轉職, 轉業의 기회만 주어지면 34%의 사람이 좋지않은 條件이라도 職을 바꾸겠다고 題29

에서 應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34%의 잠재된 移職率을 낮게하는 要因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國會速記人들은 自己의 子女나 後進들에게 速記를 권장하고 싶지 않다거나, 만류하겠대에 95%나 찬성을 표시(題30에서)하고 있는데 이는 速記術習得의 어려움도 理由겠으나 어려운 速記를 익힌 대신에, 그리고 高度의 신경소모와 집중적노동력이 필요한 速記執務에 比하여 速記職業의 反對給付의 處遇나 周邊이 滿足키 어려

운 與件이기에 이러한 統計가 나타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以上の 本題에 대한 橫的인 分析을 놓고 볼때, 그 不滿스런 短點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까. 「肯定的 不滿」이라고 하는 立場에서 最小限度의 滿足을 찾자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기대하면 될 수 있을까. 우선 各者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능동적으로 主觀해야 하는 것인가.

題12에서 좀더 診斷을 거듭해보고 處方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1. 問 선생님은 本速記職에 근무하면서 나쁜點이 솔직하게 무엇이라고 봅니까?
(해당란은 모두표시)

區分 應答	總數		性 別						在 職 年 數 別								
	人員	%	男		79 對比	女		79 對比	5年미만		79 對比	10年미만		79 對比	10年이상		79 對比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總計	162	100	132	100	167	30	100	38	37	100	47	96	100	121	29	100	37
1. 下意上達이 잘 안된다	15	9	12	9	15	3	10	4	5	14	6	8	8	10	2	7	3
2. 創意力을發揮할수없다	48	30	37	28	47	11	36	15	16	43	20	24	25	31	8	28	10
3. 人事交流가 전연안된다	44	27	34	26	43	10	33	13	13	35	17	23	24	29	8	28	10
4. 昇進이 어렵다	33	20	31	23	39	2	7	2	2	5	3	24	25	30	7	24	9
5. 處遇가 나쁘다	19	11	17	13	22	2	7	2	1	3	1	15	16	19	3	10	4
6. 別로 나쁜點이 없다	2	2	0	0	0	2	7	2	0	0	0	1	1	1	1	3	1
<無 應答>	1	1	1	1	1	0	0	0	0	0	0	1	1	1	0	0	0

<다음호에 계속>

原 稿 募 集

다음 제13호는 6月末에 發刊됩니다. 會員 여러분의 權益을 代辯하고 會員相互間의 紐帶와 速記研究 發表의 窓口노릇을 함으로써 速記文化에 寄與코자 함이 本會誌의 發刊취지인만큼 여러분의 어떠한 投稿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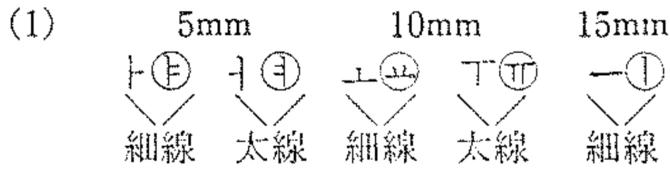
다음 要領에 의해 서슴치 마시고 會誌編輯子에게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 곳 : 本協會 宣傳部(國會速記課第3係) Tel (75) 6940

- 表紙그림.....세로 가로 15Cm정도
- 研究論文.....200字原稿紙 20~40枚
- 速記實務.....200字原稿紙 15~25枚
- 回想記.....200字原稿紙 15~25枚
- 隨 筆.....200字原稿紙 10~20枚
- 詩, 時調, 散文, 기타 提言등

◎講義 第2日

平音의 構成과 名詞略字만들기



例 1) ○표시는 半小圓

例 2) 가가거겨고교구규그기 (以下省略)

(2) 平音 140字中에서 受講生 各者의 專門分野別로 頻度가 많은 單語를 名詞略字로 아래 方法에 依해서 만든다.

길이는 2.5cm 最長線으로 써서 略字임을 表記시키고 單語의 앞머릿字를 따라 聯想하기가 容易하다.

(ㄱ) 半小圓이 없는 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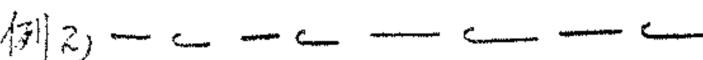
例 3) ①(고) 고시가격 ②(노)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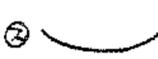
(ㄴ) 半小圓이 있는 型

例 4) ①(교) 교육 ②(뉴) 뉴스

〈速記文字〉

例 1) 

例 2) 

例 3) ①  ② 

例 4) ①  ② 

◎講義 第3日

平音(ㄱ, ㄴ, ㄷ 등 보통소리) 連綴法(이어쓰기)과 動詞略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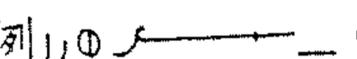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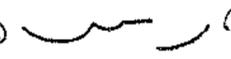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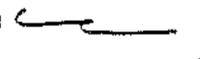
平音의 連綴 연습進度는 아行에서 라行(註1)까지 한다. 平音의 連綴時 動詞略字도 아行에서 라行까지의 動詞略字 몇개를 가르쳐 함께 익혀 나가도록 해서 趣味를 붙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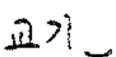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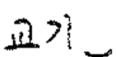
(註 1) 速記에서는 子音의 順序를 「아 가나다 라마바사자→」로 約束한다.

例 1) ①아가가 간다. ②누나가 온다. ③교기이다
動詞略字의 쓰는 位置는 名詞보다 약간 下線의 表記略字임을 나타낸다. 動詞略字는 表現이 分明하므로 한글에도 竝用할 수 있다는 점을 說明한다.

例 2) ①아가가 간다. ②누나가 온다. ③교기이다.

〈速記文字〉

例 1) ①  ②  ③ 

例 2) ① 아기가  ② 누나가  ③ 교기 

◎講義 第4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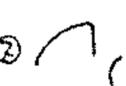
字音의 連綴과 動詞略字(繼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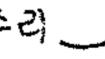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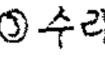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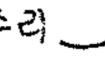
마行에서 차行까지의 連綴과 動詞略字를 第3日과 같은 方法으로 익힌다.

例 1) ①보고한다. ②주의시킨다. ③수리된다.

例 2) 例1의 한글混用例

〈速記文字〉

例 1) ①  ②  ③ 

例 2) ① 보고  ② 주의  ③ 수리 

◎講義 第5日

平音의 連綴과 動詞略字(繼續)

카行에서 하行까지의 連綴과 動詞略字를 第4日과 같은 方法으로 연습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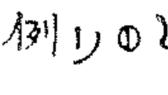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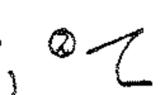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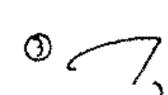
例 1) ①카나다 있다. ②추수가 없다. ③지도하고 있다.

例 2) 例1의 한글混用例

普通文字에 動詞略字의 混用은 第3日과 같은 方法이다. 第5日 마지막 時間에는 第3日에서 배운 動詞略字를 整理연습시킨다. (時制·現在)

例 3) ①칸다(가) ②이다(나) ③된다(노) ④말한다(다) ⑤둔다(두) ⑥이라(라) ⑦한다(마) ⑧모른다(모) ⑨민는다(므) ⑩바란다(바) ⑪본다(보) ⑫시킨다(사) ⑬받는다(수) ⑭안다(아) ⑮온다(오) ⑯않으면 안된다(이) ⑰준다(주) ⑱드린다(차) ⑲있다(카) ⑳하고 있다(카카) ㉑것이다(코) ㉒표한다(타) ㉓없다(파) ㉔아니다(포) ㉕했다(하)

〈速記文字〉

例 1) ①  ②  ③  例 2) 카나다,

② 추수가, ③ 지도, 例 3)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⑭ ~ ⑮ ~ ⑯ ~ ⑰ ~ ⑱) ⑳ } ㉑) ㉒ ~ ㉓ (㉔) ㉕ \

◎講義第10日

「ㄹ」받침과 助詞略符「을」「를」「있는」, 動詞의 時制變化(可能), 「ㄹ」받침이 앞머릿字에 붙는 名詞만들기

(1) 「ㄹ」받침

例 1) 갈날달랄말발살알잘찰칼탈팔할일

例 2) 連綴例 ①시달하였다 ②서울에 그는 없
을 것이다

(2) 助詞略符「을」「를」, 「있는」과 한글에 竝用

例 3) ...을(를)〈正側〉, ...있는〈反側〉

例 4) ①학교를 ②경계를 ③사랑을 ④알고있는
⑤집에 있는

(3) 動詞略字: 現在形 末端에 助詞略符「을」形을 붙여 주면 時制可能으로 變化.

例 5) 可 能

①할 수 있다 ②될 수 있다 ③갈 수 있다

④드릴 수 있다 ⑤시키질 수 있다 ⑥올 수 있다

例 6) 可能+加點(語尾變化) ①할 수 있으며
②할 수 있으니 ③할 수 있으나 ④할 수 있
고 ⑤할 수 있는데 ⑥할 수 있지

例 7) ①드릴 수 있으며 ②드릴 수 있으니 ③드
릴 수 있으나 ④드릴 수 있고 ⑤드릴 수 있는
데 ⑥드릴 수 있지

(4) 「ㄹ」받침이 單語의 앞머릿字에 붙는것 中
各者의 必要에 따라 略字만들기.

例 7) ①달성(달) ②설명(설) ③발달(달) ④물
론(물)

〈速記文字〉

例 1)

例 2) ① ②

例 3) ①

例 4) ① ② ③ ④

例 5) ① ② ③

例 6) ① ② ③ ④

例 7) ① ② ③ ④

◎講義第11日

「ㄹ」「ㄴ」받침과 助詞略字「으로」「로」「되는

(지만)」動詞略字의 時制變化(意思表示) 名詞略字 만들기

(1) 「ㄹ」「ㄴ」받침 (同一합)

例 1) 감남담람맘밤삼암잠참깜탐팜함임

例 2) 連綴例...①시급히 해결할 수 있다 ②마감
일이다.

(2) 助詞略符「으로」「로」, 「되는」(지만)과
한글 混用

例 3) ...으로(로)〈正側〉, ...되는(지만)〈反側〉

例 4) ①전화로 ②그럼으로 ③해결되는 ④있었
지만

(3) 動詞略字 意思表示는 動詞略字 現在形 前
端에 「ㄹ」받침을 붙여 준다.

例 5) 意思表示 ①가겠다 ②하겠다 ③보겠다
④드리겠다 ⑤시키겠다 ⑥주겠다

例 6) 意思表示+加點(語尾變化)

①하겠으며 ②하겠으니 ③하겠으나 ④하겠고
⑤하겠는데 ⑥하겠지

例 7) ①드리겠으며 ②드리겠으니 ③드리겠으나
④드리겠고 ⑤드리겠는데 ⑥드리겠지

(4) 名詞略字만들기는 方法이 같으므로 說明
을 略하겠음.

〈速記文字〉

例 1)

例 2) ①

例 3)

例 4) ① ② ③

例 5) ① ② ③

◎講義第12日

「ㅇ」받침과 上線略字, 動詞略字의 語尾대쉬
(')位置變化, 名詞略字만들기.

(1) 「ㅇ」받침

例 1) 강낭당랑망방상앙장창강탕광항임

例 2) 連綴例 ①강당으로 갔다 ②운동장에 있다

③정당하다

(2) 上線略字 : 그간 배운 基本文字로써 書線만 基本線보다 약간 위에 表記하여 略字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例 3) ①우리 ②우리나라 ③이렇게 ④저렇게 ⑤그렇게 ⑥우리나라는 民主國家이다

(3) 動詞의 語尾變化

點에 이어서 「대쉬」의 記法

例 4) ①...면, ...니지, ...다는데, ...니까, ...느냐, ...다고(曲線일때) ②...면, ...니지, ...다는데, ...니까, ...느냐, ...다고(直線일때)

例 5) ①하면 ②하니까 ③하느냐 ④한다고 ⑤한다는데 ⑥하는지

例 6) ①하였으면 ②하였으니까 ③하였느냐 ④하였다고 ⑤하였다는데 ⑥하였는지

第6日에 배운 語尾 位置에 加點을 「대쉬」로 바꿔 쓰는 것 뿐이므로 受講生들의 理解가 빠르고 應用度가 높은 것이다. 動詞略字 25×6=150 150×時制 5=750

〈速記文字〉

例 1) ㄷ ㄷ ㄱ ㄱ ㄴ ㄴ ㄷ ㄷ ㄱ ㄱ ㄴ ㄴ

例 2) ㄷ ㄷ ㄱ ㄱ ㄴ ㄴ

例 3) ㄴ ㄴ ㄷ ㄷ ㄱ ㄱ ㄴ ㄴ

例 4) ㄴ ㄴ ㄷ ㄷ ㄱ ㄱ ㄴ ㄴ ㄷ ㄷ ㄱ ㄱ ㄴ ㄴ

例 5) ㄴ ㄴ ㄷ ㄷ ㄱ ㄱ ㄴ ㄴ

例 6) ㄴ ㄴ ㄷ ㄷ ㄱ ㄱ ㄴ ㄴ

◎講義 第13日

「人」받침과 助詞略符 「도」「에도」, 動詞의 時制變化(否定), 完全한 文章 받아쓰기.

(1) 「人」받침

例 1) 갓낫닷탓맛밧삿앗жатчат탓팻핻앗

例 2) 連綴例

①이웃나라에는 있다 ②벗꽃을 보았다

(2) 助詞略符 「도」「에도」

例 3) ...도(正側), ...에도(反側)

例 4) 한글에 混用例 ①정부도 ②학교도 ③서울도 ④월남에도 ⑤집에도

(3) 動詞略字否定은 動詞略字 現在形의 正側 末端에 「V」型을 反對로 붙여 준다.

例 5) 否定...①할 수 없다 ②갈 수 없다 ③될 수 없다 ④시킬 수 없다 ⑤줄 수 없다 ⑥알 수 없다

例 6) 否定+加點

①할 수 없으며 ②할 수 없으니 ③할 수 없으나 ④할 수 없고 ⑤할 수 없는데 ⑥할 수 없지

例 7) 否定+「대쉬」 ①할 수 없으면 ②할 수 없으니까 ③할 수 없느냐 ④할 수 없다고 ⑤할 수 없다는데 ⑥할 수 없는지

(4) 完全한 文章 받아쓰기

받침까지의 進度면 既成法式教育과 마찬가지로 그간 배운 基本文字와 略記法을 再復習할 수 있도록 알맞는 文章을 만들어 받아쓰기를 시킨다.

〈速記文字〉

例 1) ㄷ ㄷ ㄱ ㄱ ㄴ ㄴ ㄷ ㄷ ㄱ ㄱ ㄴ ㄴ

例 2) ㄷ ㄷ ㄱ ㄱ ㄴ ㄴ

例 3) ㄴ ㄴ ㄷ ㄷ ㄱ ㄱ ㄴ ㄴ

例 4) ㄴ ㄴ ㄷ ㄷ ㄱ ㄱ ㄴ ㄴ

例 5) ㄴ ㄴ ㄷ ㄷ ㄱ ㄱ ㄴ ㄴ

例 6) ㄴ ㄴ ㄷ ㄷ ㄱ ㄱ ㄴ ㄴ

例 7) ㄴ ㄴ ㄷ ㄷ ㄱ ㄱ ㄴ ㄴ

◎講義 第14日

接續詞와 動詞略字의 時制推測 文章받아쓰기

(1) 助詞 「에」「게」「께」「에게」에 따라오는 接續詞

例 1) ①~에 對하여 ②~에 關하여

③~에 依하여

例 2) ①~에 對한 ②~에 關한 ③~에 依한

例 3) ①~에 對해서 ②~에 關해서

③~에 依해서

(2) 動詞略字의 時制規定은 動詞略字의 現在

形 末端에 助詞略符「의」를 붙여준다.

例 4) 規定

①하는 것이다 ②되는 것이다 ③말하는 것이다 ④시키는 것이다 ⑤보는 것이다 ⑥아는 것이다

例 5) 規定+加點

①하는 것이며 ②하는 것이니 ③하는 것이나 ④하는 것이고 ⑤하는 것인데 ⑥하는 것이지

例 6) 規定+「대쉬」

①하는 것이면 ②하는 것이니까 ③하는 것이냐 ④하는 것이라고 ⑤하는 것이라고는데 ⑥하는 것인지

(3) 文章받아쓰기는 前日과 같은 方法이므로 說明을 略함.

〈速記文字〉

例 1) ① — ② — ③ —
정부에... 정

例 2) ① — ② — ③ —
정부에... 정

例 3) ① — ② — ③ —
정부에... 정

例 4)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例 5)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例 6)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講義 第15日

接續詞와 動詞略字의 時制推測 文章받아쓰기

(1) 助詞略符「을」(를)에 따라오는 接續詞

例 1) ① ~을 위시하여 ② ~을 맞이하여 ③ ~을 위하여

例 2) ① ~을 위시한 ② ~을 맞이한 ③ ~을 위한

例 3) ① ~을 위시해서 ② ~을 맞이해서 ③ ~을 위해서

(2) 動詞略字의 時制推測은 「V」型을 動詞略字의 現在形 前端 正側에 붙여준다.

例 4) ①推測: 하엿을 것이다 ②推測+加點:

하엿을 것이며 ③推測+「대쉬」: 하엿을 것이라고 前日分에서 例를 많이 들었으므로 略함.

(3) 前日과 같이 文章받아쓰기

〈速記文字〉

例 1) ① — ② — ③ —
총리를... 총 리

例 2) ① — ② — ③ —
총리를... 총 리

例 3) ① — ② — ③ —
총리를... 총 리

例 4) ① ~ ② ~ ③ ~

◎講義 第16日

接續詞와 中間略字, 文章받아쓰기

(1) 助詞「으로」(로)에 따라오는 接續詞

例 1) ① ~으로 말미암아 ② ~으로 하여금 ③ ~으로 인하여

例 2) ① ~으로 말미암아서 ② ~으로 인한 ③ ~으로 인해서

(2) 中間略字는 熟語나 語句等의 앞머리字와 끝字 中間에 半橢圓形으로 連結시켜 中間字들을 略하는 略記法이다.

例 3) ①하더라도 ②아시다시피 ③왜냐하면 ④다시 말하면

위에 例를 든 것과같이 한글로도 速記略記法의 素材를 利用해서 略記할 수 있다는 것을 受講生들에게 說明해 주어 各者가 研究하도록 한다

〈速記文字〉

例 1) ① — ② — ③ —
사고로... 사 고

例 2) ① — ② — ③ —
사고로... 사 고

例 3) ① ~ ② ~ ③ ~ ④ ~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다시

◎講義 第17日

接續詞와 四熟語略記法 文章받아쓰기

(1) 助詞「와」(과)「에도」에 따라오는 接續詞

- 例 1) ① ~와 더불어 ② ~와 같이
 ③ ~와 같은 ④ ~에도 불구하고, 그럼
 에도 不拘하고

(2) 四熟語略記法은 數多한 四熟語를 略記하는 方法으로써 둘째字의 끝劃에다 半隋圓形을 붙여 받드시 따라오는 다음 두字를 略하는 略法이다.

例 2) ①思考方式 ②自暴自棄 ③明若觀火

〈速記文字〉

例 1)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너와... ① ② ③ ④ ⑤ ⑥
 例 2) ① ② ③
 사고 자포 명약

◎講義 第18日

漢字應用略字와 總整理

(1) 漢字應用略字는 漢字의 音을 따라 그 音의 速記基本文字를 上線에 表記하므로 略字임을 나타낸다.

- 例 1) ①만든다(作) 그는 무엇을 만들고 있다
 ②느낀다(感) 나는 그렇게 느낀다
 ③보낸다(送) ④이끈다(引)
 이런 方法으로 한글에도 應用이 可能하다.
 (2) 그동안 배운 것을 總整理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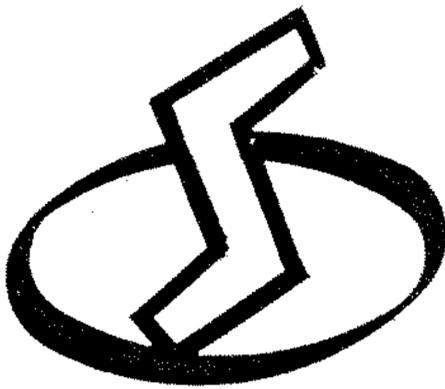
〈速記文字〉

例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끝내고서—

進도가 빠르고 分量이 많은 感이 없지않으나 講習 後에도 各者 復習과 練習을 좀 하면 熟達되리라 믿으며 速記人 여러분들의 批判과 助言을 받아 더 研究補完하겠음을 約束하면서 이 글을 놓고자 한다.

= 협 회 마 크 =



오래 전부터 생각해 온 협회「마크」가 결정되었다. 도안한 이는 총무부장 蔡康熙씨. 여기 도안자의 해설을 들어본다.

1. 圓內的 S字形은 우리나라, Shorthand, Speedwriting
2. 圓은 360度로서 速記文字의 産室임. 한편 지역사회, 세계, 우주, 무한대를 표시하며 朧침을 의미함.
3. 선은 모두 초록색. 희망. 발전의 표시.
4. 바탕은 흰색(타원색)으로 민족, 순결성을 의미.
5. 전체적인 의미는 지역사회(원)에 우리말 속기가 뿌리를 박고 머리를 들어 도약하려는 희망에 넘친 모양임을 상징함.

덜 쓰고도 다 읽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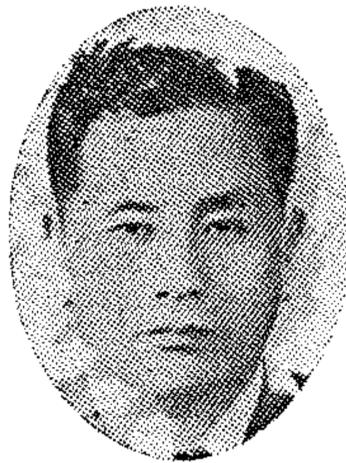
<縮字와 略字의 體系化 문제>

姜 駿 遠

(3)

◇우선 입말대로 붙여쓰기

속기를 일삼는 견지에서 보면 한글은 너무 「쓸 데 없이」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쓸데없이」는 쓸데가 있는 한 개의 부사이니 한데 붙여 쓰는 것이 당연하다. 긴 이야기는 피하지만 보통 문법에서는 「...에 관하여 · 에 대하여...」 따위의 「관하 · 대하」가 각각 독립한 동사라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에」다음에 올 때에는 활용하는 접미어라고까지 제법 속기적 풀이를 하게 되어 다행이다.



속기에서의 조사 개념은 「신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 그까짓것쯤가지고서...」를 각각 한 말이라고 알고 한 말덩어리로 써야만 잘 된 속기문이라고 되어 있다. 손이 번번이 공중 비약을 하면 지면(紙面) 주행(走行)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어간연서(語間連書)조사

사전에 보면 신통하게도 조사가 사이에 낀 「미국의 소리 · 철의 장막」을 띄어쓰기

는 했지만 한개의 명사로 인정하고 있다. 「된장 · 식은땀...」의 「니 · 은」은 관형사어미는 분명하지만 띄어 쓸 수도 없는 한개 단어니 붙여 쓴 낱말이다.

이러한 경우 속기는 속서·속독의 신작로를 위하여 부루도자를 드리내고 있다. 즉

① 먼저의 「에」가 선행(先行)하는 말들의 붙여쓰기 체제에 이어

② 잦은 형식명사 「것」은 이제 일일이 쓰는 속기는 없으리라 믿는다. 「오는것 · 갈것은 · 느끼는 것마다」 「라는것 · 려는 것 · 자는것 · 다는것...」들은 「것」스자는 비치지도 않고 한말덩어리가 되고 말게 되어야 할 것이다.

③ 그러나 속기는 더 전진(前進)하여야 한다.

④ 「아는사람 · 죽은자...」 따위에서 「힘을 쓰고」도 「힘 쓰고」와 동격(同格)으로 알아 한 어형(語形)으로. 「완성을 기하여 · 세상은 속고속이는것이 · 책임올지고 · 병이 들어서 · 기가막혀 · 무식의소치 · 너와 나 · 나도당신도 · 울고불고야단냈지 · 오고 가며 · 발벗고나서는 · 알차고다라진 · 울려고왔던가 · 난다긴다하는재주꾼도...」 따위

가 모두 무슨 약자나 쓰듯 연습을 겪지 않고도 문즉직사(聞即直寫) — 당연히 한 어형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나 어미를 어형속에 머무르면서 써 나가는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불구(不具)동사는 불구대로 묶고

「에도+불구하고」는 「불구하며·하다고·하자니…」 따위 어미활용이 없는 「불구+하고」 하나뿐의 병신(病身) 동사다. 다채로운 활용이 없으니 간단히 구속(拘束) 상태로 둘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를+불고하고·막론하고·고사하고·불문하고·무릅쓰고… 로+말미암아·인하여·하여금, 와+더불어·함께·마찬가지, 면+좋은·모르, 는+커녕, 기+마련·시작하·싫은·좋은, 가·고·듯+싶으니, 지+않으면 안되…」등 불구가 아닌 것은 아닌대로 어미변화를 시키면서 의즉형(意即形)의 연관을 맺게 할 수 있다. 언어소재(素材)는 위와 같고 기록(記錄) 소재는 무슨 교차(交叉)방식이 속기의 상식일 것이다.

접미적(接尾的) 명사도 조사로

원래는 보통명사지만 더 많이는 접미적으로 어느말 다음에 쓰이는 인칭(人稱)·대통령·장관·장군·대표·선생·수상·총리의직위·직명이나학교·시대·관계·제도·계급·정도·제도·주의 따위 접미적인 명사는 속기적 견지에서 조사처럼 처리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물아붙임의 총정리

「곤란·성공…」 따위 앞뒤에 같은 받침이 오는 말이 많다. 받침이 있는 발음자와 없는 것과의 비율은 반반. 또 있는 편이 과반이 ㄴ·ㅇ의 콧소리다. 따라서

이들이 서로 앞뒤로 어울리는 단어가 많은 확률(確率)이 나옴은 당연하다. 한자어를 쓰는 중국 자신과 한국·일본은 모두 그렇다.

속기법에서는 이같은 받침을 휘어잡아 축자법을 뜨내기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말의 경우를 종합하면 아래의 물아서 붙여한 덩어리를 만드는 체계 정연한 방도가 있다.

제 1 무리 = ㄴ · ㅇ · ㅁ × ㄴ · ㅇ · ㅁ
제 2 무리 = ㄱ · ㅅ × ㄱ · ㅅ
제 3 무리 = ㄴ · ㅇ · ㅁ × ㄱ · ㅅ
제 4 무리 = ㄱ · ㅅ × ㄴ · ㅇ · ㅁ

가장 잦은 무리는 제1로서 「곤란·성공」인데 물론 그 모든 방법은 제1차적으로는 「곤란」은 ㄴ+ㄴ으로 「곤란」이란 받침만으로 읽게 하지만 ㄴ·ㅇ·ㅁ을 앞뒤 상승(相乘)하면 「곤랑·공란·공람…」등 9가지 비슷한 말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판별(辨別)을 하며 읽기로 한다. 제2무리는 막히는 받침끼리 「약속·독촉」이지만 「ㅅ」까지 걸드리면 4가지 발음을 정독(正讀)하는 것이고 제3·4무리는 섞바꾼 어울림이다. 제1무리는 하도 잦으므로 숫제 「공동」을 「고도」로만 써서 읽어내는 법식도 있는데 생각해 볼만한 착안이다. 언어소재는 앞뒤 자간(字間)의 교차(交叉)나 접촉(接觸), 때로는 분리(分離)로 쓸만하다.

자리말의 정립(定立)

보통문자의 테두리안에서는 도저히 안될 「자리=말」의 큰 발견을 해낸 것이 속기 연구계의 거사(巨事)다. 점점 체계가 굳어 갔는데 우선 그 자리는 몇이나 어떻게 정리되어가고 있으며 무슨 말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느냐는 예견(豫見)도 서

가고 있다.



를 택해야 하므로 그 편속도(便速度)는 Klmjinh 순이라고 할 수 있다. 쓰일만한 어재(語材)는 당연히 빈출이라야 하고 단 한개 발음에 국한함은 좋은 자리가 너무 아깝다. 충분히 어미 활용조차하게 한다면 △활용하는 접미어=된다·한다. △지정사=이다. △형용사=같다. △보조용언의 경칭(敬稱)…신다. 수동(受動)의…한다(런다·긴다)용언이니 어미 활용이 되어야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웃자리에 엉뚱한 말을 적용하면 오독(誤讀)의 원인이 될터이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육감(肉感)의 말자리

뜻의 말자리로서 무서이독(無書而讀)하는 자리말법은 보편적인 어느 말에나 적용되는 규례를 일부 벗어나 이말자리는 그 쓰이는 마당이 점점 구체화 한다. 「…게」하면 으레 「된다·한다·생각한다」가 잇따르기 마련이니 「게」의 어느 자리를 그 세 가지 말의 자리로 고정(固定)시키자는 것이다. 「르수」하면 으레 「있다·없다」, 「르줄」하면 「알다·모르다·생각한다」가 오는 법이다. 기록 소재는 보통 상하좌우 네 자리는 다 있다. 무슨 선행어(先行語) 다음에 어느 용언이 오게 하느냐는 속기적 어법의 조예(造詣)에 맡길 수 밖에 없으나, 그 언어 소재는 아래와 같다. △로+되·하·생각하·보. △고+보·있·게시다. △라·려고+보·생각하. △라고·다고+보·생각하. △어+보·있·버리·지 △기+바라·쉬우·어려우·곤난하. △서

·면+못쓰·안되. △지+못하·안하·아니하·아니하면안되. △밖에+있·없. △이·히+바라·보·생각하.

그 뜻이 대어(對語)인 것은 대위(對位)가 합리적이고 예를들면 이들 법을 종합·적용하면 「구상이되어있지않고있었더니」 「속 시원하게 생각하고계심에도불구하고」가 각각 한 어형으로 이루어져서 속서·속독·정독의 속기가 됨직하다.

접두어(接頭語)는 머리에

가령 사건이 커지면 「대(大)사건」이 되는데 이런때 접두어 「대」를 가장 진보된 속기법에서는 어떻게 체제화하여 쓸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발음을 쓰면 표의화가 안 된다. 속독·정독이 요구되는 시대에서는 심각한 문제다. 필기 형식의 최고 수준을 이루려는 속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미국 그렉식에서는 슈퍼·맨 (초인간)하면 선필(先筆)로서 C자리에 S자를 쓴 $\overset{\circ}{c} \overset{\circ}{b} \overset{\circ}{a}$ 다음 후필(後筆)로서 man을 $d \longrightarrow$ 쓴다든가 한다. 일본어 접두 사 처리는 그들 속기법에서 그 잦은 お御을 문자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우리말 접두어나 「아니·안·못」 따위 부사는 이 선필·전반부에 쓰면 아주 합리적이며 그 점선재(點線材)와 쓰일 접미어는 아래와 같다. 물론 접미어란 뜻은 속기적으로 풀이되어 大事件 때의 「大」에만 쓰이지 않고 大家·大成…등 大로 이루어진 고정(固定) 낱말에도 쓰임은 물론이다.

<40페이지에 계속>

統一主體國民會議業務遂行記

黃 寅 河
楊 澈 在

우리나라 歷史上 新紀元을 이룩할 10月 維新의 宣言으로 諸分野에서 維新의 물결이 일기 始作하였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國土統一을 위한 지름길로 가기위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모든 領域에 있어서 維新思想土着化의 불이 서리고 있다는 말이다.

우선 政治的으로는 浪費와 派爭을 일삼는 非能率을 排除하고 生産的인 政治로 國力培養에 全力하며,

經濟的으로는 아끼고 저축하는 市民精神과 건전한 企業精神으로 建設 輸出 增産에 拍車를 가하여 自立 自助할 수 있는 經濟力을 기르며,

社會的으로는 모든 부정 부패와 퇴폐풍조를 일소하고 서로 協同하여 명랑社會를 建設하며,

文化的으로는 不調理와 否定的 立場을 肯定的이고도 積極적인 立場으로 刷新하여 철저한 國家觀이 加味된 維新文化의 꽃을 피우는 것이 維新하자는 뜻으로 解釋하고 싶다.

「責任과 誠實을 소홀히 하고 부질없는 形式에의 執着은 不必要하며, 오직 維新理念으로 굳게 뭉쳐 能率을 極大化하고 國力培養을 加速化해야한다」고 大統領께서도 누누이 強調한 바 있다.

이러한 維新理念을 政治制度面에서 구현시키기 위한 첫 試圖로 統一主體國民會議가 國民의 直接選舉에 의하여 構成되고 이 會議에서 昨年 12月 23日 大統領을, 지난 3月 7日 國會議員 73名을 各各 選出하였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두번의 會議에 우리 國會速記人들이 대거 參與하여 議事業務에 從事하게 되었음은 보람과 긍지를 함께 지니는 일로써 주어진 使命을 어김없이 完遂하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하였던 것이다.

1. 16,513字

大統領選舉日을 며칠 앞두고 會議準備作業은 「피크」를 이루었다.

議事 및 議席의 整理를 맡은 速記人들은 議事進行의 順序, 代議員議席의 配置 確認等 각기 맡은 分野를 분주하게 處理해 나갔다.

이런때, 가까운 어느날

代議員議席에 姓名과 固有番號標識를 붙이는 것으로 準備完了되는 것인데 드디어 2,359名의 代議員 姓名標識 부착완료.

明日出戰(?)에 만전을 기했다는 홀가분함으로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슬슬 그 標識가 「아메바」처럼 꿈틀거리며 떨어지지 않는가.

차, 이것 접착제가 좋지 않은 것이군.

부랴 부랴 事務處當局에서는 특수 「마스킹테이프」에 밤을 꼬박 지새워,

$$(2,359名 \times 3字) + (2,359名 \times 約4字) \\ = 16,513字$$

$$(姓名) + (固有番號) = 全體字數$$

글자크기도 작지않은 편인데 지펜 글씨로 16,513字를 다 써붙인 飛才를發揮한 것이다. 가히 能率의 極大化를 기했다고 할까.

이 會議은 우리나라 초유의 「맘모스」會議인지라 朴總長께서도 2,359名의 代議員이 50m간격을 두고 승용차로 모인다해도 무려 그 길이가 서울서 大田까지 뻗치는 장사진이 되리라고 비유할 정도. 사실 우리는 일하고 또 일해야만 했다.

2. 세고개

우리의 派遣業務수행중 잊지 못할 것은 朴總長의 철저한 責任觀이다.

그의 正確하고 일호의 차질도 불허하는 세심한 일처리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다.

모든 일을 나의 일처럼 타성없이 確認에 確認을 거듭하여 빈틈을 메우는 작업은 그의 경륜을 다시한번 상기하게 한다.

요번 예행연습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우리들의 認識이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저렇게」

조금 지나면 「그렇게까지야」

결국에는 「아 그렇구나」

이 세고개를 지나야 수긍과 理解가 가는 點은 그를 대해본 사람은 대개 共感하는 것이리라.

이번 준비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朴總長의 인품을 외람되게 적어 보았다.

3. 그 날

2,359名의 代議員이 장충체육관 회의장

에서 議事進行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투표를 하는 過程에서 한가지의 오류도 발견할 수 없었다.

우리의 철저한 議事준비가 效果를發揮한 이유이기도 했다.

다만,

記者들, 이들의 取材活動過熱로 代議員들의 投票狀況이 固型的으로 보인 면도 있지만 TV카메라를, 寫眞機를 눈이 따가울만큼 그리고 電熱球를 눈이 부시게 비추니 어쩔 道理가 있겠는가.

만장일치에 가까운 信任으로 現 朴大統領의 當選이 確定된 後 황하니 비어버린 會議場을 뒤로하고,

돌아가는 우리에게 體育館職員 曰 「다음에 들어오실때는 이제 入場料를 내셔야 합니다」 그의 당연한(?) 조크가 우리를 폭소의 도가니로 몰아 피로를 말끔히 씻기게 했다.

4. 여기 또 維新의 숨은 現役이

3月 아무날을 向하여 우리는 京釜高速道路를 달렸다.

필자가 배속된 京畿道地域會議.

여기서 또한 大統領이 추천한 73名의 國會議員을 選出하는 國民會議가 開催되는 것이다.

京畿道出身代議員은 280名

이분들에게 불편없이 自己들의 意思를 표시케 하기위하여 우리 從事者들은 진력해야 한다.

애초에 事務處本部를 떠날 準備에 앞서 「여러분들은 各道 知事의 부하로 파견되는 것이라」는 當局의 거듭된 당부에 명심한 우리 일행은 그 뜻을 받들어 本道の 명예를 위하여 함께 일할 것을 道關係官들과 결의를 새롭게 했던 것이다.

그들의 따뜻한 영접과는 달리 막 끝낸 地域區 國會議員選舉 뒷처리에 아직 피르가 가시지도 않은 모습을 발견할 때 여기 또 維新의 잠재된 現役이 숨어 있음을 실감하였다.

確實히 維新은 소리없이 묵묵히 해머와 엔진소리만으로 가득차야 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다.

5. 「아치」 현수막

會議場中央前面에 國民會議현수막, 그 아래 태극기, 우측에 大統領尊影, 좌측에 代議員信條 이렇게 固定시켜야 할텐데 서로의 크기가 달라서 균형있게 配置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없을까하고 며칠을 이렇까 저렇까 궁리만 거듭하던 끝에 “아치 현수막을 쳐라!” 누구에게선지 이런 音聲이 튀어나오자 모든 關係官들이 바로 그거야 하는 직감으로 作業하기 시작했다.

즉, 좌측의 「하얀 대의원 신조판」과 같은 크기의 「하얀 판」을 우측에도 설치, 그판에 大統領尊影을 걸게끔하여 균형과 조화미를 살리자는 것이다.

완성이되자 예정했던대로 그것은 회의장에 썩 어울리는 構圖의 모가 난 아치 현수막이 되었다.

努力은 創意를, 創意는 靈感을, 靈感은 勝機를 부르는 女神이라면 너무 맹랑한 얘기가 될까?

6. 一路 서울로

「친애하는 代議員여러분!

오늘 統一主體國民會議의 第2次會議를 開催하는데 즈음하여…」 議長의 開會辭를

머리로 會議는 무르익어갔다. 마침내 유신과업추진의 기수이며 정치안정의 역군인 국회의원의 선출도 끝난 것이다.

언젠가 軍에서 生活할 때 기억나는 것으로 內務査閱이란 것이 있다. 이 內務査閱準備期間이 항상 고된 대신에 정작 닥치고나면 싱겁게 끝나기 일수였다.

물론 충분한 준비로 그랬겠지만...

마찬가지로 國民會議가 너무나 조용하고 「스므드」하게 진행되니 광범한 준비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會議를 마치자 道關係官들과 작별인사를 번번히 나누지도 못한 채 줄곧 서울로 차를 몰았다.

며칠을 함께 고생하며 든 情으로 못내 섭섭함을 금치 못하는 마음을 서울을 달리며 달래야 했다.

× × ×

國會가 10月 維新의 決斷으로 長期放學에 들어간 후 우리는 鮮于總長을 위시하여 事務處職員 모두 維新의 대열에 서서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議事經歷으로 國民會議에 과전되어 大統領, 國會議員을 대과없이 선출케 하였음은 維新의 政治體制 구축의 일익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國會事務處의 영예가 아닐 수 없다.

이제 維新의 기초체제가 완료되었다.

바야흐로 維新의 날개를 유감없이 펼쳐 그 기개를 자랑할 때다.

바로 우리의 民主主義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時期라고 생각해본다.

(國會速記課勤務)

國會議事局長 送別會

☒ 3월 12일 제9대 국회 開院式이 끝난뒤 2별관에서는 前議事局長이었던 權孝燮씨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는 속기인만의 모임이 있었다.

祝辭, 祝詩낭독, 행운의 열쇠와 詩畫증정이 곁들여 조촐하나 다채로왔다.



☒ 4반세기를 국회사무처에 몸 담아온 權의원은 의사국장만도 10여년을 歷任한 의사업무의 베테랑. 國民會議에서 선출되어 앞으로 維政會멤버로 활약하게 된다. 「의외로 쉽게 국회의원을 하게 되었다」고 담담하게 소감을 피력. 「그러나 원내활동이 쉬우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지역구가 없는 나에게는 사무처가 지역구나 마찬가지로」라고.

국장직책은 떠나지만 계속 의사당에서 만나게 될텐데 본의아니게 인사를 결하는 수가 있어도 「저 사람 국회의원 되더니 사람 변했다.」라고 誤解하지 않기를 부탁하기도.

☒ 李東一계장은 축사에서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 교감이었으며, 또 속기사양성소소장으로 속기인 배출에 노력했고, 의사국장으로서의 많은 세월 동안 속기계를 향상시킨 공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장님께 그 동안의 감사하는 마음과, 또 보다 높은 유토피아를 향해 전진하는 국장님의 앞날을 축하하는 마음과,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던 열성보다 더 강한 의욕으로 원

내에서 활약하실 국회의원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모아 歎呼와 박수를 보냅니다。」
☐ 축사는 달콤하고 고운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세월의 章」 「밝은 색깔로 칠해 지기를」 「빛나는 틀 속에」 「작은 마음과 마음을」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 곳곳이 견디는 野生草」 「보다 높은 유토피아」 「마음 속의 백지에는 지워지지 않을 글자들이」 들로써 노래를 듣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도 했다.

조출한 祝賀의 시간이었다. 여기 送別辭와 詩를 紹介하고자 한다.

送 別 辭

먼저 속기인 일동이 국장님의 국회의원 당선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몸담고 계셨던 국회의 24년이라는
긴 세월의 장을 열면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
록되고 채색되어 있으리요만은 그중 귀중한 많
은 “페이지”를 우리 속기인들을 위해 그것도 밝
은 색깔로 칠해 지도록 활애해주셨고 때론 너무
철저할 정도로 사소한 일까지 걱정해 주셨습니
다.

그동안 국장님의 따뜻한 손길이 미치지 않았
던들, 그리고 알뜰한 보살핌이 없었던들 오늘날
과 같은 우리나라 속기계의 발전은 없었을 것
이며 속기문화는 꽃을 피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30년전 대한속기고등기술
학교 시절에 교감으로 봉직하시면서 우리 속기
인들과 직접 인연을 맺었고 의사국장님으로 또
현 속기사 양성소 소장님을 겸임하시면서 한 사
람의 속기사를 탄생시키기 위한 뒷바라지와 속
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주신 숨은 노력이며,
부하직원들에게는 따뜻한 인간애로 대해 주시고
아직 익숙치 못한 저희들에게 속기인이라고 하는
빛나는 틀속에 들어 가도록 격려와 수고를 아끼
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세월을 관계에서 봉사하시며, 어느 누구
보다도 속기인들의 어려운 점을 잘 이해해주셨
고 또 너그럽게 포용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우리 속기인에 대한 은공은 무엇으
로 매치차리요만은 우리들 하나 하나의 작은 마
음과 마음을 모아서 여기 조그만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국장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이끌어 주신
은덕으로 우리 속기인들은 온실속의 나약한 화
초가 아니라 비바람 눈보라속에서도 곳곳이 견
디어 낼 수 있는 야생초가 되게끔 성장 했습니
다.

불면 꺼질것 같던 미미한 상태에서 온 방안을
환하게 밝혀 주는 시대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기협회라는 거대한 차를 움직이
는 한 사람의 속기인으로서 긍지와 자각을 가지
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흠어진 소수가 아니라 뭉친 다수가 되기위한
이 원동력의 역할을 해주셨던 국장님께 그동안
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보다 높은 “유
토피아”를 향해 전진하시는 국장님의 앞날을 축
하하는 마음과,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던 열성보
다 더 강한 의욕으로 원내에서 활약하실 국회의
원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모아 환호와 박
수를 보냅니다.

저희 마음속의 백지에는 이제 지워지지 않을
글자들이 씌여지게 될 것이며, 그것은 엄하시던
인상과 함께 우리들 가슴속 깊이 자리하여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에게 지도편달을 해주심
은 물론 비록 지난날과 같은 상하관계는 떠나신
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항상 저희들 곁에 계시실것
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국장님의 앞날에 번영과 영광 있기를
빌며 다시 한번 국장님의 당선에 축하를 보내
드립니다.

영광의 뚝뚝을 달고

새벽에
우리 함께 꽃씨를 뿌리고
휘파람을 불면
그것은
우리들 아침 선박의 출항
× ×

훈풍에
철새의 깃털이 날리어 오는
3월도 날 좋은 열이들은
영광에 실린 출범의 날
× ×

생성의 단물어리는 나무가지는
숲길을 열고
농부는 겨우내 묵은 들에
봄씨앗을 뿌리더이다.
× ×

겹친 세월을
자애의 옷자락으로 바람비 막아
술한 日月이 고른 숨결로 흐른
여기
소박한 자리.
작은 손을 모으고
작은 마음을 열어
축복의 꽃다발을 엮었나이다.
× ×

삼가
이 크낙한 기쁨앞에
석별의 정
피부에 새기고도 모자라
벅찬 가슴
미어져 오는 까닭은 무엇이오니까?
× ×

겹겹이 여미고 다진

님의 발자취.
심연에 굽이치는 청량한 여울소리.
어찌 세월을 탓하여 그치리이까.
× ×

송별이 애타는
이 자리는
사랑.
벅찬 시련엔 투지를 부으시고
의지의 흔들림은 성덕으로 감싸
꿈길엔
우리의 이야기를 스미게 하소서.
× ×

지나는 길목마다 훈풍이 휘감기고
넷물소리, 새소리 들리게 하소서.
새벽을 울리는 종소리로
통일의 이야기를 전하소서.
어둠을 밝히는 이름이소서.
삼천리의 풀밭을 푸르게 하소서.
× ×

새날아침
그 영광이 열려 줄
보람찬 역사의 전당위에
희망의 불씨를 던지소서.
× ×

가시는 길
등불을 밝히는 대열속에
님의 행운을 위한 기도
들리리이다.

1973년 3월 12일
권효섭국장님의 제9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
하며

<국회속기사 일동 드림>

마나스루 등攀記

(3)

먼저 가신 15명의 岳友들이여!
기필코 언제인가 님들의 宿願을
풀어 드리리이다.

崔 錫 模

KTM~MANASLU B.C

2月 28日, 청명한 봄날의 아침을 맞다.

2週間の 준비 기간을 끝내고 드디어 「카라반」출발이다. 每日같이 30kg의 짐꾸리기에 餘念이 없었던 그 분망하고 지루한 날들...



「포타」들이 「카라반」도중 운반할 수 있는 짐의 무게는 30kg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正米 30kg를 꾸리기가 그리 용이한 작업이 아니었다.

이날 아침 「에베레스트」를 동반한 獨逸팀이 印度에 도착 했다는 소식과 아울러 우리와 같은 山인 「마나스루」를 오를 「오스트리아」隊와 「마칼루」「낭파」「다우라기리」等を 오를 日本의 4個 동반대가 「카투만두」를 向發 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今年度 「푸레몬슨」期間의 동반대 가운데 우리 韓國隊가 최선두로 「카라반」을 始作하여 가장 우수한 「셀파」, 高所 「포타」와 「포타」들을 끌어서인지 여유만만하게 기세도 당당히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교포들의 환송리에 재도전의 힘찬 巨步를 내디뎠다.

「카투만두」에서 「트리술리바자르」까지 (73km)는 大型 「벤즈」버스 1臺와 「트럭」1臺에 타고 실고 가는 途中 「갓가니」고개

에서 트럭이 길가로 나가 떨어졌으나 마침 山쪽으로 굴러 隊員들과 「셀파」들이 5時間 걸려 겨우 원상복구한 바람에 저녁 8時 「트리술리」水力發電所 윗쪽 망고나무 숲속에 첫 야영지를 잡게 되었다.

이곳에는 이미 KTM(카투만두)에서 쫓아 온 「남체바자르」, 「쿰부」地方에서 온 「네와르」族 「포타」100餘名, 「마나스루」밀의 마을인 「사마」「로우」마을에서 온 티벨系 150餘名 그리고 「트리술리」近處의 「구룬」族 150餘名の 「포타」들이 우리 隊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저기 나무 밑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상 야릇한 냄새를 피우며 음식을 먹다가 하면 누워있는 사람, 우리 일행을 멀거니 관람(?)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콜락콜락하는 기침 소리도 뒤섞인 요란한 코러스의 불협화음을 발한다.

아무튼 제멋대로의 풍경이다.

「포타」는 외국 원정대에 고용될 경우 日當 15루피 (US 1\$ = 네팔 10.10루피)를 받는데 約 2週日間 고용되면 生活水準이 낮은 이들에게 큰 所得이어서 서로 원정대에서 한몫 보려고 아우성이다.

다음날인 29日 아침, 300명의 포타와 6

名의 「나이께」를 선발, 大「카라반」行列이 장관을 이루어 목표 「마나스루 베이스」를 향했다.

「나이께」란 포타 50名에 두는 한 사람의 班長格인 감독을 말하는데 이 「나이께」는 짐을 지지 않는다.

「트리술리」에서 「카툰재」고개, 「바랑부룽」 고개를 지나 「아르갓트」 經由...

이 「아르갓트」에서는 「마나스루」 氷河에서 흐르는 네팔 王國 第3位の 「부리간다키」江을 따라 계속 깊은 계곡으로 들어간다.

워낙 江幅이 큰지라 저 江물의 根源, 실오라기 만큼한 源泉을 찾아 「마나스루」 「베이스·캠프」를 設置한다니 「카라반」의 前途가 힘들것이 예견된다.

江邊을 따라 오르자니 통나무다리, 외나무다리하며 크고 작은 다리들과 平原을 지나는가 하면 어느새 절벽에 붙어 기어오르는 300의 짐의 行列!

雪岳山の 千佛洞 계곡이 그리도 깊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 「부리간다키」江 계곡에 比하면 명함도 내어 놓을수 없는 신기하고 오묘하고 웅장한 秘境이다.

100餘m의 폭포다운 폭포도 몇 보았지만 그 폭포들의 이름을 물으면 모른다. 이름이 없단다.

젓빛 강물을 가라 앉혀 食水를 할량이면 石灰粉 같은 찌꺼기가 많이 가라 앉는데 아무리 덥고 갈증이 나도 강물을 그대로 마셔서는 아니된다.

「러브베시」湖水가에서 一泊 途中 밤새비가 오는 바람에 사마 마을 女子 「포타」 몇名을 隊員 「텐트」에 재우는 바람에 全隊員이 이(蠱)의 선물을 받아 모두들 굶적거리던 우스꽝스러웠던 追憶을 되씹으며 50

°c쯤의 「닷도바니」(「뜨거운 물」이라는 뜻)에서 動作 빠른 隊員은 略式 목욕도 하고 한나절 걸리는 외나무다리를 건너기도 하고 마지막 國境檢問所 「남루」에서 「체크」를 받고 昨年까지 通過稅(?)문제로 시끄러웠기에 3人的 경찰관의 護衛下에 「사마」 마을로 들어섰다.

「사마」 마을 出身 「나이께」인 「따씨」와 나의 셀과 「푸르바겐젤」을 데리고 殘雪이 무릎에 빠지는 고요한 마지막 마을 해발 3,600m에 位置한 「사마」 마을에 들어설 때의 초조, 긴장, 약간의 두려움과 설레임等 감회가 무량하다.

住民의 態度가 溫順하고 아무 敵對意識이 없음을 本隊에 연락하자 뒤이어 本隊와 後發隊가 도착, 반나절만 行軍하고 오늘은 이곳에서 마지막 「카라반」의 밤을 지낸다는 隊長의 命令이다.

우리는 이날밤 (3月 10日) 뿔뿔 타오르는 「캠프 화이어」를 둘러싸고 隊員, 셀과, 高所포타, 포타 그리고 原住民, 國境哨所 경찰관과 어울려 네팔民俗춤, 트위스트, 사치기 등 밤늦도록 마시고 춤추며 平生 잊을 수 없는 아니 다시는 우리 모두 그렇게 만날 수 없는 추억의 한밤을 보내고 다음날 3,800m의 日本 「베이스·캠프」를 지나 드디어 「카라반」 12일만에 大望의 「마나스루」 4,300m에 位置한 「베이스 캠프」(B·C)에 도착 하였다.

KTM이 해발 1,300m, B·C가 4,300m 高度 3,000m를 오는데 해발 2,3,000m의 고개를 수없이 오르 내리며 험난한 「부리간다키」江을 曲藝師처럼 건너 가는가 하면 이름 모를 꽃들, 풀과 나무, 원숭이때, 양떼, 소떼, 흑달린 村民, 기관지염 환자 「러브베시」湖水에 떠 있는 平和스러웠던



물오리 뱃마리, 순진한 네팔 山岳民, 라마 승녀들, 우리의 막걸리와 비슷한 “창”이라는 술, 소주와 비슷한 “럭씨”, “과쵸” 선인장, 꿀, 망고, 빠나나等도 맛보며 돈을 더 달라고 要求하는 포타들과의 약간의 「데몬·스트라이크」한 고비를 넘겨서 白雪이 하얗게 깔린 말로만 들던, 그리도 열원했던 「마나스루·베이스」에 드디어 도착하였다.

第三極地에서의 1個月

B·C는 「마나스루」氷河湖 바로 뒷쪽의 잣나무 언덕에 마련했으며 그 나무로 火木을 代用했고 졸졸 흐르는 물이나마 食水 걱정이 별로 없는 양지바른 곳이고 이곳에서만 頂上이 보이는 아주 B.C로서는 最適地였다.

단지 호흡을 잡는다면 氷河湖水로 굴러떨어지는 눈사태가 마치 大砲소리 天動소리를 방불케 해서 처음 며칠은 공포감도 없지 않았지만 그것도 며칠 지나면서부터는 자장가로 듣게끔 되었으니 心性의 변덕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한 캠프를 設置

하는데 平均 7日이 걸리며 한 캠프를 오르는 데는 가장 좋은 콘디손을 保持한 隊員인 경우 3日이 걸린다.

即 B·C에서 C-1으로 오르는 경우 첫날은 半쯤 갔다가 돌아오고 그 다음날은 B·C에서 出發 C-1에 가서 한 두 時間 休息을 取했다가 B·C로 되돌아 오고 3日째 되는 날에서야 비로소 自己 침구, 소지품, 등반필수품等을 지고 C-1에 올라가서 자고, 또한 역시 C-1에서 C-2로 오르는 경우 같은 方法으로 3일 걸려 오르게 된다. 숙달되었을 경우 한 캠프를 오르는 데는 平均해서 5時間, 내려올 때는 1時間半 정도의 時間이 所要된다. 앞서 말한 3日間の 예비훈련없이 B·C에서 C-1을 當日로 올라가서 자게 되면 바로 高山病에 걸려 심한 두통과 구토를 하여 심하면 精神異狀이 되거나 그로 因해 死亡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고도순화에 적응이 되면 當日치기를 해도 상관없다. 해발 5,000m에서는 空氣가 平地의 $\frac{1}{2}$, 7,000m에서는 $\frac{1}{3}$ 의 空氣 밖에 없기 때문에 「히말라야」에서 제일 첫째 째야 할 것은 이 고도 순화라고 해도 다녀온 사람이면 누구도 反對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에 적응하는 最善의 方法이 Slow Slow이다. 웃음의 말로 忠淸道 氣質의 體質所有者라야만 이곳에서는 適格이다.

이걸 모르고 B·C에서 C-1에 갔다 오는 첫날 나는 韓國式登山으로 쉬지 않고 急히 C-1에 갔다가 그만 尹記者 다음으로 高山病에 걸려 심한 두통을 앓게 되어 3,800m의 日本 B·C에서 2日間 休息을 取하고 나서부터는 나도 Slow motion이 되었다.

B·C에서 그동안의 포타들을 全部 되돌

려 보내고 우리 隊員 12名, 셀파 10名(사다 2名포함), 高所포타 10名, 쿡 1名, 키친보이 3名, 메일런너 3名, 政府연락경찰관 1名 合計 40名의 진짜 우리 食口들만 남아 앞으로 100日동안 눈과 바람과 빙벽 빙탑, 크레파스 그리고 파란 하늘만 쳐다보고 싸우게 되었으니 이와 對決할 장비도 어마어마하다.

프랑스製 데마종 羽毛服, 닉카바지, 純毛남방, 윈드자켓, 털모자, 놀웨이製 자누스양말, 털장갑, 우모장갑, 우모버선, 이태리製 비브람슈즈, 나일론오버슈즈, 羽毛오버슈즈, 12齒아이젠, 오스트리아製 스투바이 픽켈, 英製 까리마 지게, 日製 어택썩, 헤드램프, 스노우고오글, 羽毛침낭, 특수 에어멧트等 個人장비만도 日貨로 20萬엔이 넘으며 共同장비는 각 캠프마다 다르지만 大小텐트 40餘個, 푸로판 개스大型 10個, 특수 小型 25個, 스페이버너 中型 5個, 어택用 개스버너 4個, 무전기 大型 2個, 中型 5個, 各種자일 4,000餘m, 한병에 15萬원 짜리 산소 32병, 各種암벽용구, 그리고 食糧에 있어서도 알파미, 가루된장, 김, 미역, 라면, 고추장된장, 간장, 비스킷, 설탕, 감자, 통조림 과일통조림...等 40名이 100日동안 雪山에서 高山에서 자고 먹고, 오르고 내리고 견디어 낼수 있는 充分한 食糧과 充分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우리는 3月 11日 4,300m에 B·C 設置, 14日 5,200m에 C-1(김호섭 동반대장), 22日 5,900m에 C-2(연응모 隊員), 31日 6,500m에 C-3(김호섭 동반대장), 4月 7日 7,250m에 C-4 設置(김정섭 총대장)하는데까지 比較的 순조롭게 進行되었었다. 그간 거의 每日같이 폭설이 내려 각 캠프間에 교

통두절은 물론 무전교신 마저 끊길 때도 한 두번이 아니었지만 이러한 상태이었음에도 不拘하고 이만큼 빨리 前進을 계속한것은 一致團結된 隊員들과 우수한 셀파들의 協助, 빈틈없는 장비와 풍부한 食糧 그리고 強忍한 韓國山岳人들의 투혼의 집념의 발로라고 하겠다.

太陽熱에서 反射되는 작열하는 적외선, 자외선 作用으로 B·C도착 3日만에 입술들은 죄다 터져 피가 나는가 하면 얼굴은 벗겨지며 검게 타기 始作한다. 눈과 얼음 덩어리, 빙탑과 크레파스 地帶, 언제 떨어질지 모를 눈사태에 전신경을 곤두 세우며 드맑은 午前中の 蒼空을 쳐다 보며 두둥실 떠 있는 구름 사이사이 보이는 ㅼ쪽 ㅼ쪽한 봉오리들은 한 폭의 그림인냥 정녕 나 혼자 보기가 민망하다. 누구랑 같이 왔더라면 그도 이런 황홀한 광경을 볼것을, 아니 有名한 詩人이 함께 왔더라면 이 경치 그대로 읊을 수 있을 것을...여기까지 생각하는 사이 언제 午後로 접어들었나 보다. 푸르른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덮이려는가 싶더니 눈이 내린다. 아니 그 뿐인가 티베트 쪽에서 거센 바람이 분다. 아마 초속 20~30 마일은 뒹직한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면 히말라야에서의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닥쳐 온 것이다. 이때가 第一 고통스러운 때인 것이다. 天幕을 던다 눈을 친다, 交代로 숨을 헐레이면서 범석을 떨다보면 밤 9~10時, 어느새 눈 바람이 자고보면 검푸른 밤 하늘에 별이 빛난다. 참으로 신기한 自然의 調和앞에 人間이 농락 當하고 마는 結果이다. 北極과 南極을 地球에서 兩極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兩極에선 추위만 대비하면 되지만 第三極으로 등장한 이 히말라야에서는 추위도

추위려니와 산소의 희소때문에 모든 活動이 크게 制約을 받는 것이다.

4月 6日 C-3 6,500m에서 2泊하고 머리가 조금 아파 2~3日 쉬었다 오라는 隊長의 命을 따라 吳世根隊員과 같이 C-4 루트정찰을 함께 나가기로 된 計劃을 나 혼자만 저버리고 「잘 다녀와! 나 2, 3日後에 다시 올라 올게…」 그리고 사다와 셀파들과도 「나마스테」하고 손을 흔들며 作別을 한것이 그렇게도 다정스러웠던 그들과의 마지막 장면이 될 줄이야! 그후 한時間쯤뒤 C-3와 C-2 中間地點에서 金祐燮登攀隊長, 朴昌熙隊員, 宋俊行隊員, 安久一成氏와 담배 한 개피 썩을 나누어 피우고 역시 그들과 「나마스테」하고 헤어진 것이 生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으리오?

아! 決코 나의 生涯를 두고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1972年 4月 10日 새벽 3時 마나스루 C-3에서의 눈사태로 15名の 젊은 生命을 앗아간 悲情의 마나스루! 언젠가

는 내가, 아니 우리 韓國의 「알피니스트」들이 기어히 오르고야 말 宿命의 山이 되고 말았음을……그래야만 15名の 우리 岳友들이 그 차디찬 氷河의 문힘 속에서라도 고히 눈을 감을 것이아니겠는가.

「먼저 가신 15名の 岳友들이여!

面目 없는 歸國에서 차라리 맨주먹으로 오르고 오르다가 님들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님들의 곁에 눕지 못하고 지지한 生을 부지한 가냘픈 한 가닥의 실 오라기가 되었읍니다. 기어코 언제인가 님들의 宿願을 풀고 다시 만나 뵈겠읍니다. 그때까지 편히 쉬소서.」

鮮于宗源總長님, 權孝燮議員님, 國會山岳會員, 大韓速記協會會員, 國會職員 여러분과 그간 物心兩面으로 筆者를 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謝意를 위하여 紙面을 할애해 주신 「速記界」 편집자에게 감사드립니다.

<國會速記第4係長>

<29페이지에서 계속>

△안 아니 못 새 첫 큰 헛 끝 뒤 짓 맨 맛 맞 만.

△大太不=否無全小少非反沒未新純最準眞元現再被….

위의 안·못의 예로는 동사·형용사의 머리에 와서 안간다·못온다·안부끄럽고… 등 부정(否定)과 불가능에 표의(表意) 형태로 쓰이고, 한자어로서는 大地·大智·不

知·無智·全智…등 매우 미래의 인류 언어의 서기방식(書記方式)다운 국면(局面)이 트인다. 또 재래 일본 와세다식 계통에서 쓰던 겨우 발음만의 기본문자와는 달리하여 간자(簡字)라고 일컫던 일종의 변자(變字)조치와는 학문적 가치와 수준이 다른 고차원(高次元)의 조치라 하겠다.

(다음엔 약자법을 생각해 보려한다)

<本協會指導 委員>

論文試驗答案2題

鄭 源 道

採 點 評

今年度 國會速記士養成所 入試論文出題를 「國力培養과 一人一技」 「溫故知新」 두 問題中 擇一토록 하였다.

答案을 보니 大體로 잘 作成되었는데 個中에는 좀 問題가 漠然한 點인지 變두리만 點과 같은 點도 있었다.

主觀式問題의 採點이어서 저울로 달듯이 點數를 評定하기가 어려워 대강 두어가지의 基準을 세워보았다.

첫째, 주어진 問題를 옳게 把握하였는가.

둘째, 文章의 構成力이 얼마나 되는가.

셋째, 漢文과 漢字의 理解力이 어느 정도인가 등으로 해서 差等을 두었다.

出題當時의 생각으로는

「國力培養과 一人一技」에서는

1. 國力培養의 必要性和 姿勢

2. 國力培養의 많은 要件中에서 經濟成長을 爲하여 技術面이 가지는 比重과 必要性.

「溫故知新」에서는 過去의 빛난 文化와 美風良俗을 본받고 모든 不條理를 排除하여 올바른 우리의 나날 座標를 삼기위한 10月 維新의 모든 理念具現의 內容을 願하였던 바 大體로 當爲性만을 말하고 거

기에 따르는 方案을 結論짓지 못하였음이 다소 아쉬웠다. 漢字는 高等學校教育에서의 水準이면 좋겠는데 同音異意로 音만을 맞게 漢字吏讀式인것을 쓴것이 많았다.

그중에도 좋은 答案이 많았는데 두가지만 紹介하고자 한다.

끝으로 特히 寒冷한 日氣에 環境도 좋지 못한 試驗場에서 앞서 치룬 試驗에 이어 머리도 식히지 못하는데다 出題조차 가볍지 못하여 여러面으로 受驗生諸位에게 未安한 感 禁치 못하는 바이다.

(國會速記第1係長)

〈答案 1〉 溫故知新

每日 每時間의 生活이 달라져 가는 급속한 變化에 接하고 있는 現代人들은 거의 옛賢人들의 가르침이나 지침, 그들의 思考方式을 無視하는 事例가 왕왕 있다. 우리는 現代 物質文明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코 이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先人들이 이뤄놓은 업적을 現實에 부합되도록 開發을 하고 다듬어 어제보다는 더 나은 來日의 生活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얼마전 프랑스의 有名 日刊誌인 「Le

Monde」誌의 “Victoire sur la grippe à l'In”이라는 題下의 特集에 의하면 世界的으로 가장 흔한 병이면서도 예방약이 없어 每年 數千萬의 人類가 고생을 겪어야 했던 毒感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世界 最初로 開發됐다는 消息이다. 몇년전의 홍콩 毒感에 이어 今年에 새로 생긴 英國 毒感이 東歐와 北美 일대에서 한창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즘 世界的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파스퇴르研究所는 혁명적인 毒感예방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파스퇴르研究所의 클로드 아농教授와 濠洲의 화즈케스 드 생 그로스박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백신은 이미 알려진 毒感뿐만 아니라 앞으로 數年內에 發生할 수 있는 다른 毒感들도 함께 예방할 수 있는 효능을 갖고 있음이 實驗을 통해 증명됐다 한다. 이런 結果까지 오는 데는 실라이덴이나 시반의 세포설로부터 R·후크, R·브라운, P·모울의 세포發見과 스탠리의 비루스 발견등 많은 醫學者들의 연구가 계속됐던 것이다.

金屬活字로 인쇄된 世界 最古의 現存 文獻인 「直指心經」(고려 우왕 3년:1377)이 발견됨으로써 한국이 세계최초의 金屬活字使用國임이 국제적으로 公認되게 되었다는 소식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衝擊을 안겨 주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사용국임이 브리타니카百科事典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나라의 專門書籍에 散發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를 實證할만한 실지 文獻이 발견되지 않아 여태껏 세계 公認을 얻지 못하고 우리보다 220年이나 뒤늦은 구텐베르크의 「42行聖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當事者인 우리의 안타까움을 넘어서 世

界 文化史의 精確한 記述을 위해서도 적이 아쉬운 일이었다 하겠다. 다행히 유네스코가 昨年 「책의 해」 行事로 프랑스 國立圖書館에서 열었던 「책의 歷史」 綜合展에서 直指心經이 발견되어 公認의 계기가 되기는 했으나 그것이 파리國立圖書館의 所藏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韓國古書目錄」이나 「羅麗文籍誌」 또는 「在佛韓國文獻目錄」에도 게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심히 遺憾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歷史나 傳統文化를 결코 輕視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는 韓國史에 있어서 이른바 濫故知新을 強力히 실천해야 할 단계에 直面하고 있다. 過去의 퇴폐적이고 非生産的 요소는 禁物이다. 투철한 歷史觀과 民族的 召命感에 불타 일치단결된 力量을 보여야 할 때다. 그리하여 「잘살기위한 憲法」 또는 「잘 살아보자는 憲法」으로써의 의욕과 의지로 經濟的 基盤을 強化하고 經濟的 交流의 面과 幅을 넓혀야 된다는 것이다. 경제적기반의 구축이 民族國家의 自主·自立을 위한 前提條件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태여 論議할 필요도 없겠다. 經濟的 發展段階에서 볼 때 不均衡發展過程의 是正단계로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새마을 운동과 韓國的 면모를 담은 維新憲法이 相互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새로운 歷史를 창조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 나라의 歷史나 傳統文化는 그 나라의 過去보다도 現在와 未來에 連結되는데 더 큰 意義가 있음을 알고 精確한 歷史意識이 民族의 將來를 發展的 歷史로 이끌어 올린다는 평범한 사실을 再確認하면서 이를 우리 民族史의 再發見 내지는 再發掘의 커다란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고자 할 따름이다.

〈韓 振 奎〉

〈答案 2〉 國力培養과 一人一技

先進國으로에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정에 있어서 國力の 培養이란 참으로 重要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國力の 培養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은 國民各者의 소질계발에 대한 努力일 것이다.

國民 각자는 現時點을 充分히 理解하여 배우며 맡은바 責任完遂를 위하여 不斷한 努力을 하여야 하겠다.

國力培養이란 결코 크고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學生들은 學校에서 工夫에 全念하고 職場人은 職場에서 勤務에 充實하는 바로 가까운 것에서부터 行해져야 하겠다. 現在 全國土에서 成功리에 實施되고 있는 새마을 運動도 國力培養의 한 方面이 된다 하겠다.

그러나 결코 이러한 行爲만으로는 우리의 理想인 先進國의 隊列에 確固하게 올라설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능력이 기반이 되어 나라가 발전하리라는 確信을 가지고, 무언가 生産的인 方面에서 國民 각자가 完全한 技術을 習得해서 團合된 國民의 力量을 發揮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적으나마 學校에서 배운 知識을 밑거름으로 社會에서 주어지는 일에 보다 誠實하게 보다 勤勉하게 能力을 最大限으로 發揮해야 하겠다.

우리 모두는 “하면된다”라는 말을 銘心하여 各者의 所質을 啓發함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모든일이 그렇지만 특히 기능을 연마 하기에는 남과 다른 노력이 絶對히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성경말씀에 있듯이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것과같이 自己가 일어서서 찾으면 좁은 意味에서 個人에게 利로울 것이며, 한편 큰 의미에서는 國家發展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國民個個人이 구성원이 되어 國家라는 단위가 成立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 個個人의 誠實한 努力이 모여 國家의 힘으로 結實되는 것이니 國民各者는 現實을 직시해서 우리도 先進國이 될 수 있다는 確固한 信念과 긍지아래 이루고자하는 意慾으로 功能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며, 또한 맡은바 責任을 誠實히 完遂하여야 하겠다.

〈韓 根 峻〉

〈資料〉 1973學年度 國會速記士養成所 新入生選拔經過

國會速記士養成所 1973學年度 新入生の 應募現況과 選拔經過는 다음과 같다.

1. 募集期間：1973. 2. 19~2. 24
2. 總應募者：1,057名(男627名,女430名)
3. 一次試驗日(筆答)：1973. 2. 25
4. 試驗場所：建國大學校 2部大學
5. 1次試驗應試者：1,028名(29名缺試)
6. 試驗科目：國語·一般常識·論文

7. 一次合格者發表：1973. 3. 2
8. 一次合格者數：230名
(總300點滿點에 180點以上得點者)
9. 二次試驗日(面接)：1973. 3. 4
10. 面接內容：適性·素養·容貌
11. 二次試驗應試者：223名(7名缺試)
12. 最終合格者發表：1973. 3. 7
13. 最終合格者數：100名(男68名,女32名)

한해를 보내는 마음

高 錫 光

쥬앙, 太古적부터 내려오는 세월을 보내고 맞는 喜悅의 울안에서 心欲에 싸이고 苦惱에 허둥대는 轍環의 歷史가 출달음질치는 한해의 마지막 순간이 고요히 잠들고 있오.

날씨도 겨울답지 않게 포근하여 마음도 뜨거워지고 세월을 보내는 아쉬움도 순환의 법칙속에서 서서히 지워져 가고 있오. 허무하다기보다 너무 많은 未練이 쌓여 서러움없이 보낼 수 없는 시간들이었오. 그러나 索莫한 마음으로 黃昏과 어둠을 맞아들일 수 밖에는...

쥬앙,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는 것은 바보짓이 되기 십상팔구이나 「人生은 너무 짧기 때문에 비루하게 살 수 없다」는 「디즈렐리」의 말을 나의 생활과 연결시키려고 노력해 왔고 그런 執念의 덕으로 정서까지 잊을 뻔한 메마른 감정은 과도처럼 밀려온 쥬앙의 自畫像으로 충만해 있다오.

生을 부여받은 23년을 돌이켜 보는 나는 「生存은 오직 鬪爭에서 勝利한 자에게만 可能하다」는 중요한 「모랄」을 알았을 뿐이나 그러한 인생의 법칙도 따지고 보면 그 根源을 그대에게 두고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오. 그대가 끊임없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지 않았던들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는 정신적 執念은 무너졌을 것

이오. 온갖 유혹과 조롱, 그리고 고독과 피로움이 가슴을 저미는 이 순간에도 먼 훗날을 위하여 마음쓸 수 있는 여유는 그대가 나의 가슴에 살아 있기 때문이오.

언제인가 그대가 속삭여 주던 말을 지금도 그대는,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것이오.

「약속을 어기는 바보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보다 지금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과 더욱 친해지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 않아요? 이젠 모든 오해를 푸시고 우리들 둘만의 시간을 마련해요. 지금 밖에는 별들이 웃고 있을거예요. 요 며칠밤은 날이 흐린 탓으로 별들을 볼수가 없었으나 오늘밤은 유난히 더 반짝이네요. 저별들이 숨어버리고 동녘에 해가 뜨면 고달픈 하루가 시작되겠지요?」 쥬앙! 이것이 그대의 진정한 소리라면 아! 나는 그대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외다. 그대가 나로 인해서 生이 즐거울 수 있다면 그러한 그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나는 얼마나 또한 행복하겠오. 행복이란 어리석은 자의 헛된 꿈이라고들 하지만 나에게 만은 이 행복이란 꿈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오. 「우리들의 생애를 가치있게 보내고 보다 인간다운 생활추구로 현실에 충실하고, 짜임새 있는 생활계획으로 비루한 삶이 되지 않게 하면 될것 아니겠오?」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이 마음을 어찌 여기에 모두 표현할 수 있으리요만 다만 생각나는 내 나뉠의 眞理 한가지를 적어보려 하오.

생존을 위한 투쟁이란 바로 인간의 본능이며 윤리라고 보지 않으오?

역사가 그랬고 현실이 그렇듯이.

더우기 適者生存의 원리는 비단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것이외다.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동물들의 생존은 한정된 힘에 의하여 질서가 유지되지만 인간은 이성과 지혜를 투쟁의 무기로써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잔인하고 파괴적일 때도 있는 것이외다.

나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면을 알것 같더라 말시오.

그러나 나는 인간의 투쟁정신에 환멸이나 공포를 느끼지는 않소.

먼 후일 인간들의 잔인한 투쟁방법으로 그들 스스로가 멸망의 도가니로 떨어진다 면 몰라도 발전을 위한 선의의 투쟁이라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소.

따라서 나는 인간의 모든것을 사랑하오.

비록

투쟁에 의한 부작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오늘의 문화와 문명을 이룩했으며 만물의 영장으로서 군림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기에 말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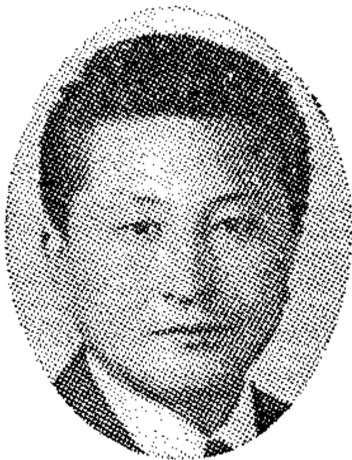
쥬앙

이제 아침이 밝아 오는구려.

<國會速記課>

昭 陽 江

柳 智 永



자갈밭 수숫대 사이에서, 잡목이 우거진 등성이에서 어린 꿈을 고이 키우고, 찌들은 가난속에서 낭만과 행복을 찾아 모진 自然의 試練과 싸우며, 所

重히 간직한 사랑까지도 살다 보내고 끝내는 하얗게 中天에 걸린 달이 눈부서 失足으로 마친 신애...

얼마전 방영된 바 있는 「昭陽江」의 줄거리이다.

어쩌면 사람의 一生이란 “나”라는 말한 마디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지?

몇千년의, 아니 그보다 더 오랜 歷史일 지도 모를 긴 歲月동안 온갖 哀歡과 苦樂을 눈여겨 보아 왔으면서도 말없이 滔滔히 흐르고만 있는 저 昭陽江!

水沒民의 붓집이 줄을 이어 고갯길을 넘으면서도 뒤돌아 보고 뒤돌아 보며 못내 아쉬움을 남긴 채 어디론가 또 가야만 되는 旅程...

그러나 그 焦點이 없는 눈초리만은 저 無限大한 蒼空을 바라보며 두둥거리는 뭉게구름의 잔등에 몸과 마음을 싣고 같이 떠가는 것일게다.

速記實務 16年에서 失足한 나!

돌아보면 昭陽江 물줄기에 묻어 버린 사연의 알알과 같은 것!

水沒民의 悲哀를 삼킨 저 물줄기가 슬픔을 딛고 「댐」을 이루고 수없는 기적을 이룰 때 그 누가 敢히 물줄기로 덮힌 저 昭陽江을 탓할 수 있는 것일까?

草原에 벌렁 누워 양팔 다리를 마음껏 펴고 끝없이 맑고 푸르른 하늘을 쳐다 보며 深呼吸를 한번 크게 해 보면 싱그러운 풀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여기에 亦是 우리도 나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는지...

<本協會監事>

기속한대회 기협회대한속기협
협속회 협기속한대

第6回 定期總會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1. 日 時：1972年 12月 23日 午前 10時
2. 場 所：國會速記士養成所
3. 出 席：在籍會員 178名中 95名 出席
4. 附議案件

- 〈1〉 1972年度 決算案承認
- 〈2〉 1973年度 事業計劃書 및 豫算案承認
- 〈3〉 任員改善

5. 會務報告

1970. 12. 30 第3回 定期總會에서 저희들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후 2年이라는 期間이 지나고 오늘 저희들이 1年間の 受任事項에 對한 報告를 드리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前年度 第4回 定期總會와 今年度 第5回 臨時總會에서 저희들을 편달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더한층 사명감을 가지고 諸般 所任을 완수하기 위해 12次의 理事會와 4次의 部長會議를 가지고 全任員이 名實相符한 協會로서의 發展을 위하여 힘이 닿는한 일을 해 보려고 노력해 왔읍니다마는 뜻하지 못했던 國庫補助金의 中斷등으로 會員 여러분의 기대에 副應하지 못한 點이 많았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 執行部署 決定

第29次 理事會를 72. 1. 5 開催하여 다음과 같이 一部 執行部署를 變更하였읍니다.

總務部 柳智永

外國語部 盧英民

財政部 金仁寧 崔秉秀

研究委員會 李龍洙

宣傳部 梁源龍

資格審査委員會 李康賢

事業部 申世華 高用培

無任所 崔錫模 韓奉永

2. 國庫補助金 受領

72年度 國庫補助金 總額 778,000원중 1/4分期 185,000원을 72. 6. 7에 受領하였을 뿐 殘額 593,000원은 補助團體에 對한 政府의 시책으로 말미암아 그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3. 速記無料 講習

㉑ 放學을 利用한 講習

放學期間을 통해서 學生과 一般人的의 速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보급을 目的으로 朝鮮日報社의 후원을 얻어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期	日 時	場 所	法 式	人 員
冬 季	72. 1. 17~2. 5	東 邦 速 記 學 院	東 邦	國 語 918名
		時 事 英 語 學 院	그 레 그	英 語 233名
夏 季	72. 8. 8~8. 28	東 邦 速 記 學 院	東 邦	國 語 324名
			그 레 그	英 語 80名

㉒ 言論機關從事者에 對한 講習

京鄉新聞社 記者 10名에 對한 實務講習을 72. 1. 5부터 1. 15까지 10日間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4. 第3回 全國速記士資格試驗

72. 10. 1 國會事務處 및 朝鮮日報社 후원으로 개최하여 國語 82名, 영어 11名이 응시 國語에 52名 英語에 10名이 各級數별로 합격 되었습니다.

5. 會誌 發刊

會員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고 있는 速記界는 會員각위의 의견과 선배 여러분의 고견을 실어 季刊誌로서의 면모를 차츰차츰 갖추어 가면서 今年度 發行분 3회를 완간하고, 4/4분기분인 第12號는 계엄하의 출판물 검열관계로 다소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6. 速記學術誌 發刊

72. 3. 21 速記總覽 第1集 菊判 208面 1,000部를 發刊 배부하였습니다.

7. 速記學術研究

第4回 定期總會 위임에 의거 金永春, 金善弼, 高太中, 朴光澤, 梁源龍, 趙隅石, 韓相九 會員을 研究委員으로 위촉하고,

- 1) 速記대중화 보급을 위한 단기강습용 速記法式창안.
- 2) 發言속도의 高速化에 적응한 기존법식의 개량 및 부문별 전문용어 수집.
- 3) 速記의 필요도 증진방안 研究.
- 4) 速記錄 작성양식 획일화에 대한 研究.

5) 기타 會員복지 향상 방안에 대한 研究에 착수하였으나 國庫補助의 중단으로 上記 5個 사업 계획중 2항의 사업만을 추진하여 현재 각위원회별로 각 부문별 전문용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8. 體育大會 및 野遊會

72. 5. 7 會員상호간의 친선과 체위향상을 도모코자 會長님을 위시하여 관계요로의 기관장들을 모시고 축구대회 및 野遊會를 會長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協會창립이래 가장 성대하게 개최하여 유종의 美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불충분합니다마는 當協會 第4回 定期總會 이후 1年間 많은 실적을 올리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本人과 理事 여러분이 在任중 會員여러분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드리며 이제 희망의 새해를 맞는 73년에는 좀더 유능하고 協會를 위해 힘쓰실 任員이 선출되어 本協會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報告를 마치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2년 12월 23일

理事長 安 仁 榮

6. 議決된 案件

〈1〉 1972年度 決算

(1971. 12. 25~1972. 12. 29)

세입			세출				
관	항	예산액	결산액	관	항	예산액	결산액
기본수입		159,000	98,800	회의비		134,000	95,850
월회비		144,000	95,800	경상비		96,000	36,400
입회비		15,000	3,000	수용비		60,000	0
사업수입		1,100,000	986,850	사업비		2,037,500	1,016,170
광고비		80,000	16,000	속기경기대회		193,000	0
회지대		40,000	0	무료속기강습		600,000	368,600
수수료		900,000	932,050	속기학술연구		92,000	20,000
검정료		50,000	38,800	속기전시회		489,000	0
경기대회		30,000	0	회지발간		404,000	270,380
찬조금		320,000	171,500	자격검정시험		130,000	60,840
잡수입		4,114	7,348	체육대회		129,500	105,950
보조금		995,900	402,900	속기학술지		190,400	190,400
이월금		396,386	396,386	관공비		150,000	138,980
				예비비		280,000	320,740
				이월금			455,644
계		2,975,400	2,063,784	계		2,975,400	2,063,784

〈2〉 1973年度 豫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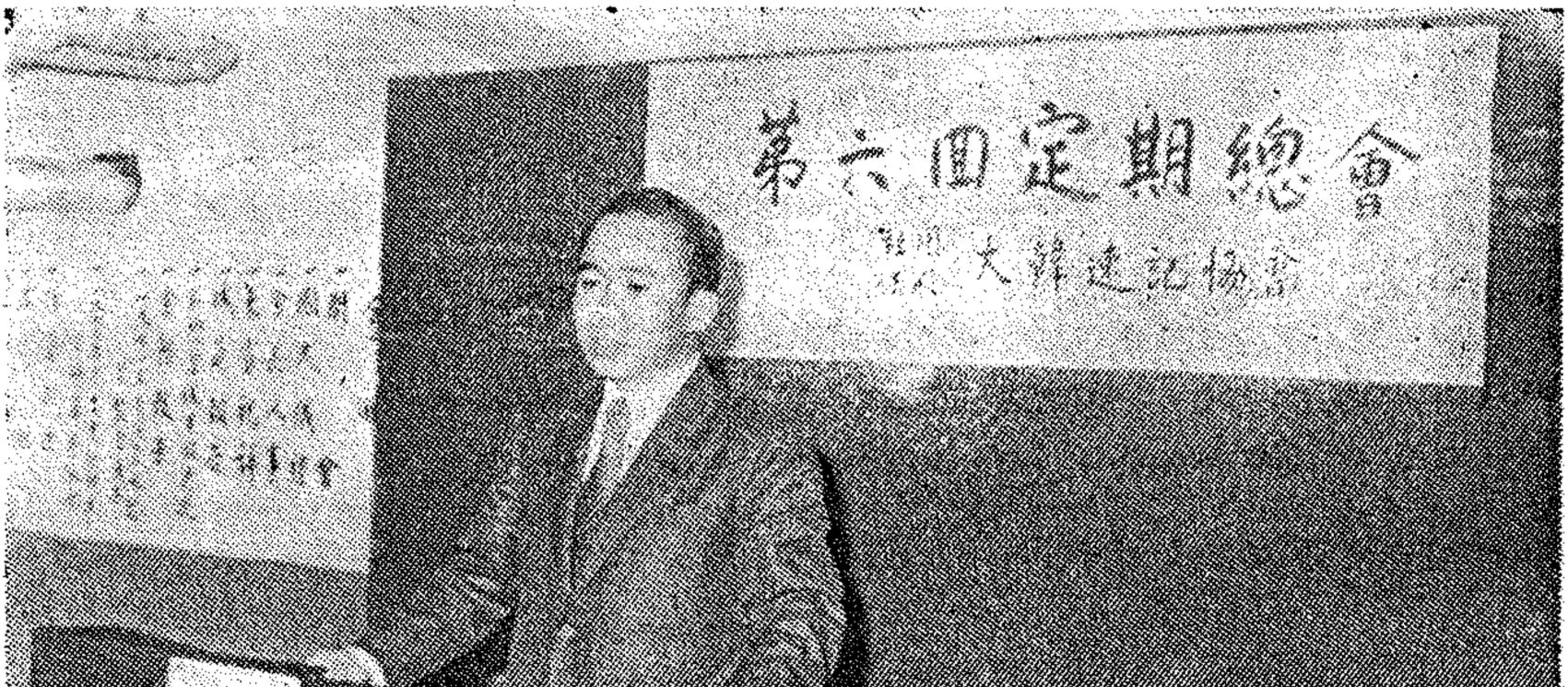
세입			세출		
관	항	예산액	관	항	예산액
기본수입		147,000	회의비		110,000
월회비		144,000	정기총회		50,000
입회비		3,000	회의비		60,000
사업수입		1,080,000	경상비		60,000
광고비		40,000	사무비		60,000

회 지 대	40,000	수 용 비	60,000
방 학 강 습 수 수 료	950,000	사 업 비	1,926,500
자 격 점 정 수 수 료	50,000	무 료 강 습	569,200
찬 조 금	816,300	자 격 점 정 시 험	90,000
잡 수 입	7,556	회 지 발 간	384,000
이 월 금	455,644	속 기 학 술 연 구	152,000
		외 국 속 기 협 회 시 찰 및	588,800
		연 구	142,500
		체 육 대 회	150,000
		관 공 비	200,000
		예 비 비	
계	2,506,500	계	2,506,500

〈3〉 改善된 任員

定款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滿了된 任員을 다음과 같이 選出하였다.

會 長 金 龍 泰 (國會運營委員長)	副 會 長 金 鎮 基 (國會速記擔當官)
顧 門 鮮 于 宗 源 (國會事務總長)	理 事 長 金 永 善 (國會速記 3 係長)
顧 門 權 孝 燮 (國會議員)	總 務 蔡 康 熙
" 李 鎬 賑 (國會事務次長)	財 政 部 長
" 任 哲 淳 (國會專門委員)	宣 傳 部 長 楊 澈 在
" 吉 基 祥 (國會委員局長)	事 業 部 長 高 用 培
" 崔 興 俊 (國會速記課長)	外 國 語 部 長 盧 英 民
" 劉 龍 珪 (國會總務課長)	研 究 資 格 李 康 賢
指 導 委 員 姜 駿 遠	審 查 委 員 長
" 金 星 漢	理 事 申 世 華
" 李 東 根	" 高 太 仲
" 張 基 泰	監 事 孫 弘 基
	" 柳 智 永



用語解説 (5)

研究委員會

○골드러시(Gold Rush) : 金投機. 금의 가격상승을 예상하고 투기적으로 금을 매입함을 말한다.

○괴팅겐 선언(Göttingen Declaration) : 1957. 4. 12 4인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西獨 원자력 과학자 18명이 西獨 「괴팅겐」에서 발표한 원자력 평화이용에 관한 선언

① 18명은 어떠한 형태로도 원자력무기의 제조 실험 사용에 참가 않는다.

②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이용에는 협력한다.

○內需産業 : 국내 수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

○臺灣條項 : 1969. 11 「닉슨」 「사도」 美·日 정상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아시아」 특히 극동의 안보에 臺灣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합의한 내용.

제4항에서 「臺灣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는 日本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BBS운동(Big Brothers and Sisters Movement) : 불우한 소년 소녀의 형이 되고 자매가 되어 그들을 선도하려는 운동.

○庶業所得稅 : 사업소득세 중에 배우등의 경우와 같이 영업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소득세를 세무서에서 행정수행의 편의상 서업소득세라고 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가 있다. 稅法上 서업소득세란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서업소득의 대상이 되는 자유직업에는 음악 재단 무용 요리등과 교사 세무사 접골업 안마업 공증인업등이 있다.

○스미드소니언(Smithsonian) 體制 : 통화파동의 수습책으로 생겨 난 선진 10개국의 국제통화체제 1971. 12. 19 「워싱턴」의 Smithsonian 박물관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생긴 이름.

○이노베이션(Innovation) : 기술혁신.

○再割引 : 일반 시중은행이 일정한 할인 방법에 의해 얻은 어음을 중앙은행에 의뢰하여 현금화하는 것.

○轉換社債 : 사채 발행일로 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

○ZD : Zero Defects의 약자 1962년 美國 「마친」 항공기회사에서 全社적으로 결점을 제거하므로써 「미사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개된 생산 관리상의 한 방법 EN(No Error)라고도 한다.

○操短 : 操業短縮

○크레임(Claim) : 수출입을 함에 있어서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등의 이의를 제기하여 손해배상·할인·계약취소 등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크메르 루주 : ①反「론·놀」 민족주의자 ②「시아누크」 지지파 ③불평분자등 3개파로 이루어진 「크메르」의 반정부 정치세력.

○彭殤이 一般 : 사람은 수를 다 하거나, 어려서 죽거나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가기는 마찬가지라는 뜻.

○플랜트(Plant) : 시설재. 즉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계 및 설비등에 쓰이는 시설자재.

○PPM(Parts Per Million) : 100만분율. 전체를 100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중의 몇개에 해당되는가를 나타내는 분율.

○戶順調査 : 세무당국이 상가나 영업장소등에 잠재되어 있는 세원을 찾아내기 위해 1년에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정밀성있는 세무조사.

○換리스크(Risk)보험 : 환율의 변동등으로 무역거래에 있어서 뜻밖에 입는 손해를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

○워터 게이트(Water gate)사건 : 1972년 워터 게이트 빌딩 안에 있는 미국 민주당본부 전화 도청 사건

消息을 알립니다

宣 傳 部

(1) 72年 12月 30日 國會事務處終務式場에서 本協會監査이며, 國會速記課에 勤務하고 있는 柳智永會員이 國會事務總長의 表彰을 받았읍니다.

(2) 國會事務處에 勤務하고 있는 黃寅河會員은 73年 1月 4日부터 73年 3月 20日까지 統一主體國民會議事務處로 派遣되었다가 復歸하였읍니다.

(3) 國會事務處에 勤務하던 任明心會員은 보람과 적성을 찾아간다는 말을 남기고 지난 1月 31日 議政府市에 있는 화랑保育院으로 職場을 옮겼읍니다.

(4) 金仁寧(國會速記課)會員은 지난 2月 21日 全國民이 關心을 기울이고 있는 統一問題에 대한 南北調節委員會의 業務수행등을 위하여 派遣되었읍니다.

(5) 지난 3月 5日 國會事務處速記課에 勤務하던 李永烈會員은 總務處 國務會議室로 轉補發令되었읍니다.

(6) 軍에 服務中이던 朴大成會員이 除隊하여 73年 3月 23日 國會速記課로 復職하였읍니다.

(7) 3月 22日자로 辛天教會員이 一身上事情으로 國會事務處에서 退職하였읍니다.

(8) 지난 3月 7日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李振義氏가 國會議員으로 當選되었음을 알리면서 아울러 自祝하는 바입니다.

李振義議員은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第1回 同門이며, 서울新聞社에 在職하였읍니다.

(9) 지난 1月 21日 第42次 理事會에서 研究委員會 規定 第2條에 의거 다음과 같이 研究委員을 選任하였읍니다.

研究委員長 李 康 賢

研究委員 高 太 仲(幹事) 金 東 遠 金 善 弼 金 永 春

趙 隅 石

(10) 73年 1月 9日자로 本協會記者를 다음과 같이 任命하였읍니다.

金 致 元 (留任)

張 淑 卿 (新任)

※2年餘에 걸쳐 手苦를 아끼지 않은 金仙玉記者는 本人의 事情으로 辭任하였음을 알리면서 그 勞苦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11) 1973年 3月 7日 李東一(國會速記第2係長), 李賢熙(國會速記課)會員은 東亞日報

심정섭記者와 女性의 職業訓練 및 速記士養成所近況에 關하여 對談을 나누었던바 同 記事는 東亞日報에 게재되었습니다.

(12) 3月 28日 10時 35分 放映되는 TBC·TV「파노라마」(50分間)프로에「國會速記業務의 哀歡」이란 題目으로 本會會員이 다음과 같이 出演하여 뜻있는 座談을 가졌습니다.

出演者	李 東 一 (國會速記第2係長)	梁 順 喜 (國會速記課)
	梁 源 龍 (國會速記課)	招待손님 金 思 達 (박애병원장)
	金 永 春 (國會速記課)	金 教 植 (作 家)
	金 基 英 (國會速記課)	司 會 人 姜 基 TBC기자

(13) 感謝牌傳達式

『○○○동지는 維新的 憲政秩序確立에 전기가 되는 第2次 統一主體國民會議(地域會議) 業務遂行에 적극 參與하여 會議가 成功的으로 完遂된데 대하여 이를 영원히 記念하기 위하여 感謝牌를 드립니다.

統一主體國民會議事務總長 朴 璟 遠』

國會速記課第5係長인 孫弘基氏를 비롯한 速記人 23名은 以上の 內容을 담은 感謝牌를 지난 3月 29日 國民會議事務總長으로부터 받았읍니다.

(14) INTERSTENO(世界速記 및 打字聯盟)消息

第30回 intersteno大會開催

日 程 : 1973年 7月 28日~1973年 8月 2日(6日間)

場 所 : Spain國 바렌시아

內 容 : 1. 中央委員會開會
2. 世界速記 및 打字競技大會
3. 實驗的 速記에 關한 討論

追記 : 이웃 日本에서는 1971年 第29回 벨기에國 부류셀大會에서 團體加盟이 된바 있으며 今年에도 社團法人 日本速記協會主催로 自費負擔參加會員을 募集하고 있습니다.

(15) 지난 3月 2日 10시에 도큐호텔에서 韓國을 訪問한 長井富雄(日本 參議院 記錄部 副部長)氏와 國會速記課長 崔興俊氏, 本協會副會長 金鎮基氏間에 격의없는 對談이 進行되었습니다.

對談中 符記한만한 消息은 現在 日本 參議院 速記者養成所 學生募集에 있어서「男女」募集을 한다는 것으로 이 때까지는 男性만 應募할 수 있었음에 비추어 그 規定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日本社會에서 男性의 취직율이 일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苦生스러운 努力이 強要되는 速記를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때문에 男女共學으로 制度를 바꾸어서 今年 4월에 募集할 것이라고 합니다.

東南亞巡訪 첫길에 韓國을 訪問하게 되었다는 氏는 停年이 가까운 老眼인데도 유난히 밝고 구김이 없었음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3 회 국어 영어 速記士 資格 檢定試驗

合格者名單

國語速記

1級	유 승 판 이 영 애 김 은 주 이 정 숙	송 혜 경 최 예 숙 조 영 창 노 회 남	김 은 숙 김 경 해 박 순 필 이 영 열	이 승 철 장 숙 경 김 채 영 고 석 광	計16名
2級	응시자 없음.				
3級	합격자 없음.				
4級	전 현	장 경 숙	김 명 숙		
5級	김 선 화 이 근 북 정 태 권 이 용 춘 조 현 심 안 영 미 김 종 한	장 김 종 권 영 찬 박 왕 규 민 병 락 김 윤 덕 홍 호 신 조 영 화	이 명 승 허 박 옥 고 동 준 조 영 희 이 선 회 정 대 길	이 순 구 김 성 규 오 중 택 박 병 윤 우 종 애 정 복 회 문 우 군	計28名
6級	김 정 화 엄 영 수	박 영 호 우 영	윤 락 회 필 노	김 금 순 김 와	計 8名

英語速記

4級	朴 曦 珠	유 상 철	홍 성 민	計 3名
5級	김 은 숙	김 태 화	計 2名	
6級	차 태 선	홍 경 희	이 종 훈	송 경 애 計 4名
8級	오 영 란	計 1名		

※ 速記에 관한 相談을 받습니다 (Counselling of shorthand)

速記關係資料, 學習, 請託等 速記에 關한 모든 問議는 本協會宣傳部에서 取扱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案内할 것이오니 會員諸位와 速記에 關心있는 많은 分은 널리 利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相談所(Counsellor) : 本協會宣傳部 Tel 75:6940

(國會速記課 第3係)

會 務 日 誌

72. 10. 1 第3回 全國 速記士 資格檢定試驗實施
72. 10. 27 第39次 理事會
10.17 大統領特別宣言에 對한 支持聲明의 件
72. 10. 27 10.17 大統領特別宣言에 對한 支持聲明發表
72. 12. 28 第40次 理事會
第6回 定期總會開催의 件
72. 12. 30 第6回 定期總會
72. 12. 30 第41次 理事會
1. 執行部署決定
2. 第12回 放學講習開催의 件
73. 1. 5~1. 10 第12回 放學講習受講生 願書接受
(國會 第4別館 速記課 第3係 事務室에서)
73. 1. 6 會長訪問 新年人事(副會長, 理事長)
73. 1. 11 第12回 放學講習開講
東邦速記, 大韓經理, 時事英語學院
73. 1. 11 第42次 理事會
放學講習接受人員, 決算報告
國語速記: 621名
英語速記: 145名
73. 1. 29 73年度 法人定期報告書提出(文化公報部)
73. 1. 31 第12回 放學講習修了式
國 語: 413名
英 語: 115名
73. 2. 12 第6回 定期總會報告書提出(文化公報部)
73. 2. 12 國會事務處로부터 孫弘基 楊澈在 高太仲會員에 對한 本協會
理事 및 監事兼職承認 通報書接受
73. 2. 17 1次研究委員會開催
73. 3. 14 2次研究委員會開催
短期講習用速記法式研究次

〈總 務 部〉

編 輯 後 記

12호를 6개월만에 내놓게 되었다. 부득이 긴 겨울을 그냥 보낼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이야...

주변정세의 급속한 변화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다가 지금사 쌓인 원고를 추스르게 되니 뿌듯한 감격이 어린다. 때를 같이 하여 맹렬 편집인이었던 梁源龍씨와 기자 金仙玉씨가 떠나갔다. 12호를 내면서 더욱 그분들의 勞苦를 실감한다. 지속적인 편달로 닦은 경험들을 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제 추운 겨울을 난 투지로 봄바람에 어린잎을 피우면서 무성한 가지로 가꿔 알찬 열매를 거둘날을 기대하면서, 신선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창의력으로 출항 하겠다는 욕심을 부리면서 회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뒤로 하고 두려움 없는 뜻뚝을 올린다.

우리 회지가 速記學術研究發表의 窓口로 회원 相互消息交換의 복덕방으로 親睦圖謀를 위한 사랑방으로 그 구실을 다하여 명실상부한 회원들의 자랑스런 회지가 될 것을 다짐한다.

이제 張기자가 들어와 편집팀이 보강되었다.

어울리지도 않게 「My first mistake」라는 어느날부터의 「닉네임」을 달고서

季刊 速記界

<第12號>

1973年 4月 30日 發行

發行人 金 龍 泰

編輯人 楊 澈 在

印刷 光明印刷公社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서울特別市 中區 太平路 1街 60—1

TEL(75)6940·6987

發 **祝** 展

社團 大韓速記協會指定養成機關
法人

官認 東邦速記學院

院長 李 東 根

學 院 案 內

☆ 創立 25 周年 !

- ◇ 우리나라 唯一의 速記士私設養成所
- ◇ 大韓速記協會指定養成機關

한글速記科

- 本 科..... 4 個月
- 研修科..... 1 年
- 資 格..... 高卒以上

英文速記科

- 本 科..... 3 個月
- 研修科..... 1 年
- 資 格..... 高卒以上

== 修 了 後 ==

國會, 各官公署, 各言論機關, 各軍速記兵, 外國人商社, 留學時의 筆記 및 알바이트等 高級就業으로 社會進出 容易.

官認 東邦速記學院 TEL. ㉠1266